

Candy Box

중학교 졸업식을 마친 우리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시내로 나섰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지만, 새로운 학용품을 고를 때만은 웃음이 가득했다. 호돌이로 장식된 쇼핑물 안의 문구점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각자 취향에 맞는 학用品을 고르는 아이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나는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아디다스 마크가 새겨진 하얀 레자 가방을 어깨에 걸쳐 보았다가 조용히 내려놓았다.

친구들과 나온 거리는 여전히 최루탄 연기로 자욱했다. 한 무리의 대학생들이 전경들에게 쫓겨 골목으로 사라졌고, 우리는 매운 눈물을 흘리며 연기 속을 빠져나왔다.

“이제 대통령도 직접 뽑는 시대인데 뭐가 불만이라고 이러는지 몰라.”

손수건으로 코를 막은 아주머니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돌이 날아드는 곳을 피해 전경버스 뒤편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잡혀 온 대학생 형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전경 하나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 대학생 형의 허벅지를 내려쳤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때 한 중년 신사가 달려들며 외쳤다.

“민주화 시대에 경찰이 이래도 되는 건가!”

주변이 웅성거렸다. 나는 걸음을 재촉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리를 붙잡은 채 고통스러워하던 그 대학생 형을 자꾸만 뒤돌아보며, 벌떡거리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매캐한 가스에 따라워진 눈물이 자꾸 시야를 흐려 놓았다.

밤밤비나 워우워어~

음악이 쿵쾅거리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저마다 좋아하는 곡이 나왔다면 빠르게 돌아가는 원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우레탄 바닥 위로 바퀴들이 구르는

소리가 한꺼번에 밀려왔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비명소리가 롤러장 안을 가득 메웠다.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자 나는 몸을 던지듯 롤러장 벤치에 앉았다. 가쁜 숨을 가라앉히며 승재를 바라보았다. 승재는 여전히 여자애들 앞에서 제자리 돌기를 하며 재주를 뽐내고 있었다.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동네 친구도 아니었지만, 일요일 미사가 끝나면 오후 늦게까지 같이 쏘다니는 단짝이었다.

승재가 미끄러지듯 달려와 내 옆에 앉았다.

“야야, 지훈아. 저 애들 중에 마음에 드는 애 있어?”

승재가 턱으로 자기가 있던 쪽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넌 누구 마음에 두는 애 있어? 한둘이 아니라 힘들겠구나. 부러운 놈.”

“다 필요 없고, 내가 요즘 눈여겨보는 애가 있는데…”

승재는 조심스럽게 내 시선을 한쪽으로 유도했다.

“우리보다 누나 아니냐?”

나도 요즘 들어 종종 그 애가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

“민지보다 한 살 위래. 올해 중 3. 민지가 알려줬어.”

나는 짐짓 놀란 듯 물었다.

“진짜? 키도 저렇게 크고, 입고 다니는 것도 완전 다르잖아. 난 고등학교 누나인 줄 알았는데…”

저쪽에서 그녀가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한 손으로 쓸어 넘기며 우리 쪽을 살짝 쳐다보았다.

“야, 너무 그렇게 눈 뚫그랴게 뜨고 쳐다보지 마. 눈치채잖아. 언제부턴가 재 자꾸 내 쪽을 본다니까.”

“진짜?”

승재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저번에도 재가 사진기 들고 우리 찍는 거 내가 봤다니까.”

나는 웃었다.

“에이 설마. 그래서 말은 붙여 봤어?”

“아니. 이미 그물에 걸려든 것 같은데, 이 몸이 서두를 필요는 없지.”

“뭔 소리야?”

승재는 나를 잠깐 내려다보더니 말했다.

“어린 네가 어찌 알리오… 됐다.”

그해 발렌타인데이는 일요일이었다.

그날도 우리는 늘 그랬듯 롤러스케이트장에 갔다.

“너 오늘 초콜릿 몇 개나 받을 것 같아?”

승재에게 물었다.

승재는 기대하는 듯하면서도 사뭇 진지한 얼굴로 중얼거렸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질이 문제지.”

“아마도 그 애한테 받겠지. 너라면?”

부러워해 주는 척하며 내가 말했다.

승재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롤러장에 도착했지만 신발도 갈아 신지 않은 채 입구 벤치에 앉아 있었다. 승재는 긴장했는지 발을 떨고 있었다.

“오늘은 롤러 안 탈 거야?”

승재에게 물었다.

승재는 그제야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바라보았다. 사뭇 긴장되고 굳은 얼굴이었다.

“지훈아, 그냥 나가자.”

갑자기 승재가 벌떡 일어났다.

“왜? 그냥 가게?”

“어서 가자니까.”

나도 승재를 따라 일어나 출입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저기, 오빠!”

나와 승재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였다. 나는 얼른 승재의 얼굴을 쳐다봤다. 승재는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획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 버렸다.

“승재야—”

나도 총총걸음으로 승재를 뒤쫓아갔다. 승재는 빠른 걸음으로 건물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승재야, 왜 그래? 아까 저 애가 너 부르잖아.”

승재는 골목을 돌아선 뒤에야 나를 보았다. 한참 골똘히 생각하는 듯 서 있더니, 깊은 숨을 하늘로 내뿜고 말했다.

“넌 어려서 아직 몰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나를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남자는 쉬우면 안 되거든.”

며칠 뒤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민지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오빠, 그날 왜 그냥 갔어?”

나는 고개를 가웃했다.

“그 머리 긴 언니 말이야. 그날 오빠 주려고 초콜릿 들고 왔는데, 오빠랑 승재 오빠가 갑자기 가 버리는 바람에 못 줬다고 하더라.”

나는 바로 그녀라는 걸 알아차렸다.

“승재 주려던 거 아니었어?”

“아니야. 자, 받아. 언니 오늘 못 온다고, 혹시 오빠 나오면 전해 달랬어.”

갑작스럽게 내 손에 진고동색 상자가 쥐어졌다. 금장 테두리가 선명한, 괜히 만지는 손끝까지 조심스러워지는 상자였다.

순간 그녀보다 승재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 승재가 오기 전에 나는 얼른 집으로 향했다. 어차피 구체적으로 만나자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상자 안에는 작은 초콜릿들이 칸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런 초콜릿을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파는 것과는 어딘가 조금

달랐다.

나는 하나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상자를 닫았다.

나는 그 초콜릿을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승재를 몇 번 만났다. 승재는 계속 그녀 이야기만 했다. 방학 내내 그녀를 봐 왔다고, 이번에는 왠지 다를 것 같다고.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승재는 정말 폭 빠진 것처럼 보였다. 가끔은 그 말들이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했다.

나는 내가 정말 그녀를 좋아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았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았다. 초콜릿을 받긴 했지만 그녀와 직접 말을 나눠 본 적조차 없었다. 어쩌면 내가 시작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은 일인지도 몰랐다.

나는 결국 그녀를 만나기로 했다. 민지를 통해 약속이 잡혔다. 나는 미리 할 말을 준비했다. 며칠 동안 같은 문장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다. 골목 입구에 조용히 서 있었다. 큰 키가 아니었다면 어울리지 않았을 보랏빛 롱코트에 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그녀를 가까이서 보았다. 시야는 멀어지고 귀는 먹먹해졌다. 사람도 건물도 소리도 모두 사라지고 그녀만 또렷하게 남았다. 나는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준비했던 말을 한 번에 꺼냈다.

“초콜릿 고마웠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내 친구가 너 좋아해.”

나는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을 끝냈을 때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다. 원래 다음 대사가 있었는데…… 진공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녀는 짐짓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방긋 웃었다.

“오빠. 나 때문에 고민 많았겠다.”

“미안해.”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나 오랫동안 오빠 봤어. 난 오빠도 나한테 관심이 있는 줄로만 알았어.

오해해서 미안해. 그래도 초콜릿은 오빠 주려고 한 거니까 받아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조금 웃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천천히 생각해도 돼. 그냥… 오빠가 진짜 원하는 대로 해. 다들 각자 선택권은 자기에게 있는 거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직 내가 싫다는 말은 안 한 거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골목을 돌아설 때 그녀는 한 번 더 뒤돌아봤다. 그리고 가볍게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허리춤까지 밖에 올리지 못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책상 위에 초콜릿 상자를 올려놓았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뚜껑을 열었다. 가지런히 놓인 어두운 색 초콜릿들. 나는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입에 넣었다.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이상한 맛이었다. 내가 알던 초콜릿의 맛이 아니었다. 달콤했고 조금 씹쓸했고, 묘하게 깊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심장은 계속 뛰었고 낮에 보았던 그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긴 머리카락. 나는 당장이라도 그 머리칼의 숫자까지 셀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내가 초콜릿에 예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승재를 마주한 방안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다.

“그날 그 애가 나한테 초콜릿 준 거 알고 있었어?”

승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왜 갑자기 나가자고 했어? 그리고 왜 나한테 계속 네가 그녀 좋아한다고 말했어?”

승재의 표정이 조금 굳었다.

“그래. 초콜릿 준 거 봤어. 보고도 나가자고 한 건 미안하다. 그리고 그 애 이야기 계속한 건… 지훈이, 네 생각이 궁금해서였어. 넌 계속 관심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한번 잘해 보려고 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공기가 잠깐 거칠어졌다.

승재가 쏘아보며 말했다.

“초콜릿 하나 받았다고 갑자기 좋아진 거야?”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니야.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서운한 건...”

나는 뭐라고 하는 게 나올지 말을 골랐다.

“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버렸잖아.”

승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초콜릿을 받았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건 내 선택이었어. 근데 넌 그 선택권을 처음부터 없애 버렸어.”

내 목소리가 좀 커졌는지 승재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목소리를 낮췄다.

“너도 개를 좋아하는 거 알아. 그래도 그건 네가 정하는 거고, 내 마음은 내가 정하는 거잖아. 사실 우리 아직 어리니까... 모두 친구처럼 지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뭐, 그냥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나는 잠깐 웃었다.

승재는 나의 미소를 확인하고는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리고 승재의 방을 나서며 말했다.

“일요일에 또 보자.”

늘 하던 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오늘 내가 승재에게 했던 말들이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일요일에 또 보자.”

늘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승재는 점점 내 시야에서 멀어졌다. 가끔 전화를 하고 안부 정도는 물었다.

“뭐가 그렇게 바빴냐?”

오랜만에 만난 승재는 웃으며 말했다.

“연애 사업이 바쁘지. 여자애들이 자꾸 쫓아다니니 친구 만날 틈이 나겠냐.

누구도 마찬가지잖아?”

짜증이 섞인 말투로 내가 대답했다.

“아이 참. 아직도야? 그만 좀 해. 다 같이 나와 친구처럼 지내자고 했잖아. 이제

방학도 금방 끝나면 만날 시간도 없을 텐데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사이좋게 놀자.”

승재는 억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헤헤… 미안 미안. 그냥 해 본 말이야. 나 진짜 바쁘다구. 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인데 바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야말로 개한테 너무 빠지지 말고 입학 준비나 잘해.”

승재는 원래 뭐든 빨리 정하는 쪽이었다. 개한테 너무 빠지지 말라는 승재의 말에 살짝 마음이 들뜨는 게 미안스러워졌다. 겉으로는 웃고 이야기했지만, 개학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우리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와 나는 자연스럽게 몇 번 더 만났다. 하지만 승재는 나오지 않았다.

우리 둘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걸었다. 이제 롤러장에는 가지 않았다. 그녀는 롤러스케이트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를 늘 “오빠”라고 불렀다. 그게 꽤 힘들었다. 나는 평생 누나들 사이에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살았다.

그래서인지 누군가가 나를 오빠라고 부르는 일은 좀 낯설고 어색했다. 그것도 나보다 한 뼘이나 큰 여자애에게 듣는 “오빠”라니. 차라리 내가 누나라고 부르면 훨씬 편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나는 결국 말했다.

“그냥… 오빠라고 안 부르면 안 돼? 난 누나들이 더 편해. 가끔은 네가 누나 같기도 하고.”

말을 하고 나니 괜히 걱정이 되었다. 그녀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 나는 괜히 미안해졌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오빠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오빠는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알고 그걸 아주 재밌고 친절하게 설명해 줘.”

그녀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조금 새침하게 말했다.

“그래서 난 계속 오빠라고 부를 거야.”

그녀는 심술 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갑자기 괜히 우쭐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아주 귀엽다고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내가 그녀보다 키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그런 상상을 하자 나도 모르게 조금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내게 물어본 적이 없다.

“오빠는 나 좋아해?”

같은 질문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 같다.

나는 그녀의 손도 잡지 않았다. 우리는 그냥 걸었다. 천천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걸었다. 그 시간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그 겨울 마지막 눈이 오는 날도 우리는 함께 걸었다.

“이번 겨울엔 오빠랑 눈길을 같이 걷지 못할 줄 알았는데, 마지막 눈이 이렇게 예쁘게 내려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햇살은 이미 따스해지고 있었고, 그만큼 눈은 금방 녹아버릴 것 같았다. 우리는 농칠세라 자꾸만 걷고 또 걸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제 곧 벚꽃 필 텐데, 그때 벚꽃길도 같이 걷자. 그러다 또 눈 오는 날이 오면... 그날도 당연히 만나겠지?”

2월 14일. 그리고 3월 13일. 까치발로 버터 내려 해도 시간의 속도를 당해 낼 재간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났다. 화이트데이.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곧 3월 14일이었다. 나는 정말 무일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사탕을 줘야 했다. 그녀가 내게 초콜릿을 줬으니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

개학 후 고등학교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다. 수업이 끝나도 집에 바로 갈 수 없었다.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이어졌다. 집에 돌아오면 밤 열 시였다. 그녀의 집은 우리 집에서 꽤 멀었다. 평일에 만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가끔 늦은 밤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다. 끊고 나면 한 장씩 뜯겨 나가는 달력이 나를 조바심나게 했다. 캔디 살 돈... 어머니에게 손 벌릴 일은 이미 많았다. 교과서와 학교 용품을 사기도 빠듯했다. 나는 제과점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진열된 사탕 선물세트를 그냥 바라봤다. 하지만 아무 방법도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동전 몇 개가 손가락에 잡혔다. 그것뿐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준 초콜릿 상자를 열어 보았다. 그날 이후 나는 단 하나만 먹었었다. 상자 안에는 여전히 화려한 초콜릿들이 가득했다. 나는 두번째 초콜릿을 꺼내 입에 넣었다. 이번에는 맛이 조금 달랐다. 이상하게 굉장히 썼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것이 걱정 때문이었는지 초콜릿 때문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모르겠다.

나는 하교 후 제과점에 다시 들렀다. 진열대에는 화려하게 포장된 사탕 선물세트들이 가득했다. 알록달록한 캔디들이 눈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녀가 내게 주었던 초콜릿 상자만큼 근사해 보이는 것은 없었다. 가격표를 보자 헛웃음이 나왔다. 유치해 보이는데다 가격은 생각보다 비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어이없는 건, 그런 사탕조차 살 돈이 내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결국 슈퍼마켓으로 향했다. 사탕을 따로 사서 직접 포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문방구에 들러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을 샀다. 손재주가 없는 편은 아니었기에 최대한 그럴듯하게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사탕을 포장했다. 나를 정성을 들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완성된 모습을 보는 순간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럴듯하게 보이기는커녕 어딘가 어설피 보였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나는 큰누나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용돈을 조금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누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사탕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다.

“이런 거 받는 애는 어떤 애일까?”

그리고는 다시 사탕을 집어 들며 말했다.

“넌 여자 마음을 잘 모르나 본데, 나 같으면 이런 게 훨씬 감동이야. 네가 직접 포장한 거잖아. 내가 이런 걸 받으면 진짜 감동할 것 같은데?”

누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그 사탕을 받은 여자라도 된 것처럼 나를 꼭 안아 주었다.

그해 화이트데이는 월요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만나기로 했다. 화이트데이라서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었다. 그녀도 기대하지 않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굳이 화이트데이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나는 아침부터 괜히

분주했다. 옷을 입었다가 다시 벗고 하기를 반복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누나 방에 있는 무스도 발라 보았다. 어딘가 우스워 보였지만 다시 고칠 시간도 없어 그냥 집을 나섰다. 그때 큰누나가 나를 불러 세웠다. 누나는 내 옷매무새를 한 번 정리해 주고 머리를 다시 살짝 다듬어 주었다. 그러더니 내 주머니에 지폐 몇 장을 넣어 주었다.

“점심 맛있는 거 사 먹어.”

나도 밥 먹을 돈 정도는 챙겨 두었지만, 누나가 준 지폐 몇 장에 괜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나는 가방 속에 사탕을 넣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멀리서 그녀의 모습이 보이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한 달 동안 여러 번 만났지만 그날은 역시 조금 특별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걷기만 했었다.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내가 오빠였다. 점심으로 뭘 먹을지 자신 있게 물어볼 수 있게 된 날이었다. 나는 웃으며 물었다.

“점심 뭘 먹을래?”

그녀는 잠깐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기대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우리 아빠가 오빠 점심 한번 사주고 싶어 하셔. 오빠가 불편하면 우리끼리 그냥 놀아도 된다고 하셨고… 오빠 마음대로 해.”

그녀의 눈빛을 보니 왠지 나를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은 것 같았다.

“내가 오빠 이야기 아빠한테 많이 했거든.”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러자.”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걱정 마. 아빠는 밥만 사 주시고 가실 거야. 그다음엔 우리끼리 재미있게 놀면 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폴짝거리며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갔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다.

시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일요일이기도 했고 화이트데이 전날이라 그런지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붐볐다. 그녀와 이렇게 사람 많은 거리를 함께 걷는 건 처음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그녀는 어디를 가도 눈에 띄는 아이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아마 누나와 남동생이 시내에 놀러 나온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사람들의 시선이 싫지는 않았다. 우리는 잠시 서점에 들어갔다. 나는 책을 넘겨 보고 있었고 그녀는 내 옆에서 자꾸 시계를 쳐다 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아버지가 도착하셨다.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흰색 와이셔츠 사이로 건장함이 배어 나오고 있었다. 무엇보다 키가 정말 컸다. 아침에도 분명 집에서 봤을 텐데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품에 폭 안겼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아버지는 잠시 나를 내려다보더니 짧게 말했다.

“너였구나.”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나도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그런데 어쩐지 손이 꽤 아팠다. 그녀는 아버지의 어깨에 딱 붙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계속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다. 나는 뒷자석에 앉아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 보았다. 아버지의 은빛 세단이 부드럽게 출발하였다.

우리는 하얀 식탁보가 깔린 원탁에 앉았다. 의자도 정삼각형 모양으로 자리가 잡혀 있었다. 나는 이런 곳에 와 본 적이 거의 없었다. 돈가스 정도는 먹어 본 적이 있었지만, 내 앞에는 여러 종류의 칼과 포크가 낯설게 보였다. 자리에 앉자 웨이터가 내 무릎 위에 하얀 냅킨까지 올려놓았다. 괜히 몸이 굳는 느낌이었다. 그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지훈이 오빠 공부를 아주 잘해. 이번 고등학교 입학 평가시험에서도 4 등 했대.”

나는 순간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신나게 늘어놓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마치 어항 속에서 누군가 말하는 걸 듣는 것 같았다. 그때 음식이 나왔다. 내 앞에는 스테이크가 놓였다. 멍하니 칼과 포크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녀가 슬쩍 의자를 내 쪽으로 가까이

당겨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나이프와 포크로 내 스테이크를 썰기 시작했다. 능숙한 손놀림이었다. 그녀는 잘게 썬 고기를 내 접시에 먹기 좋게 담아 주었다.

그녀는 썰어 놓은 고기가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듯 살짝 웃었다.

“얼른 먹어 봐, 오빠. 나도 오늘 오빠 덕분에 이런 데도 와 보고 좋네.”

“응, 고마워.”

내가 잘 썰린 스테이크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만족한 듯 웃음을 지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 혹시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왜 위에도 있고 꼬리에도 있는지 알아?”

아버지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쎄다. 방향 바꿀 때 쓰려고 그런 거 아닐까?”

그녀가 금방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애초에 꼬리에 프로펠러가 없으면 헬리콥터가 뱅글뱅글 돌아버리잖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겠구나.”

그러자 그녀는 또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번에 미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왕복선 있잖아. 밑바닥이 왜 까만색인지 알아?”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허허허, 네가 그런 데 관심이 있는 줄은 몰랐구나.”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조금 웃었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모두 내가 그녀와 걸으면서 했던 것들이었다. 공룡 이야기, 헬리콥터 이야기, 우주왕복선 이야기.

여중생이 그런 것들에 진짜로 관심이 있을 리는 없었다.

“지훈 오빠는 정말 모르는 게 없다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

“그래? 그중에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아버지가 천진한 얼굴의 그녀를 보며 물었다.

“음...”

그녀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중에서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일 재밌어. 오빠 얘기 듣고 집에 와서 다시 읽어 봤다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잠시 화제를 바꾸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 부모님은 다 잘 계시고?”

그 시절 어른들이 의례적으로 묻던 질문이었다. 나는 별생각 없이 짧게 대답했다.

“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

아까까지 그녀에게 보이던 다정한 목소리와는 조금 다른, 꽤 진지한 말투였다.

“엄마랑 누나 세 명 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곧바로 물었다.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지?”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언제 돌아가셨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태어나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어머니가 무척 고생하셨겠구나.”

그녀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가만히 듣고 있던 그녀가 나를 한 번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빠, 나 지훈 오빠랑 공부도 열심히 할 거야. 오빠가 내가 모르는 거 정말 잘 설명해 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이제 내 이야기를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식사가 다 끝나고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자, 이제 슬슬 일어나 볼까. 한참 앉아 있었으니 화장실 다녀올 사람은 미리 다녀오거라.”

그녀가 급하게 말했다.

“나는 괜찮아. 오빠 다녀올래?”

사실 나는 화장실이 몹시 급했다. 아마 긴장을 너무 한 탓이었던 것 같다.

“응, 나 다녀올게.”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볼일을 보고 세면대 앞에 서서 멍하니 거울을 보고 있는데 뒤에서 문이 열렸다. 그녀의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용변기 앞에 섰다. 그리고 벽을 바라본 채 조용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홀로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구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시 말했다.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3년이 거의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다.”

볼일을 다 보시고 돌아서서 나를 보며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연애나 하고 다니는 게 맞겠어?”

잠시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가 들리다 툭 하고 끊겼다.

“네가 똑똑한 것 같아서 이 아저씨가 말하는 거야. 열심히 공부해서 어머니 호강시켜 드려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학생이 머리에 무스나 칠하고 다니고 말아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넌 똑똑한 아이니까 내 말을 오해하지 않겠지? 안 그렇지?”

나는 작게 대답했다.

“네.”

화장실 문을 나서자 그녀가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식당 입구에서 다시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래, 재미있게 놀다가 늦지 않게 들어가거라. 오늘 만나서 반가웠다.”

나는 다시 악수를 했다. 이번에는 손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손이 살짝 흘러내리는 느낌이었다. 쥐다 만 악수 같은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용돈을 쥐여 주고 은빛 세단에 올라탔다. 차는 먼지를 살짝 일으키며 천천히 멀어졌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제 어디 갈까? 내가 잘 아는 생과일 카페 있는데 거기 갈래? 거기 그네도 있어서 앉아서 음료 마실 수 있어. 분위기 진짜 좋아.”

“그래.”

“잘됐다.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걸어가자.”

그녀가 앞장섰고 나는 한걸음 뒤로 따라갔다.

“오빠 뭐 해? 빨리 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괜히 머리를 형클어뜨렸다. 쇼윈도에 비친 내 머리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그녀가 하는 말에 겨우 맞장구를 치고 있을 뿐이었다.

“오빠 음식 어땠어? 밥 먹기 좀 불편했지? 다음엔 편한 데 가자. 나도 처음엔 엄청 불편했어.”

나는 짧게 대답했다.

“아니야, 좋았어.”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졌다. 체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내 얼굴을 보더니 말했다.

“오빠 어디 안 좋아?”

“아니야.”

그녀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다.

“아빠가 화장실에서 무슨 말 했어? 뭐라고 했는데?”

“아니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나는 애써 웃으며 말을 하다 갑자기 인상이 찌푸려졌다.

“진짜야. 나 진짜 갑자기 배가 아파.”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더니 말했다.

“카페에 화장실 있으니까 거기 가자. 오빠 조금만 참을 수 있지?”

그건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 진짜 미안한데…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 가 봐야 할 것 같아.”

“내가 같이 가 줄까?”

“아니, 괜찮아.”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았다. 실망한 표정이 숨겨지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내 두 손을 잡았다. 생각해 보니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오빠 손이 차가워. 정말 몸이 안 좋나 보네.”

그녀는 잠시 내 손을 꼭 잡고 있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그래. 오늘은 집에 들어가.”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미안해.”

그녀는 갑자기 나를 살포시 안았다. 그리고 내 볼에 가볍게 입술을 댔다.

“꼭.”

장난스럽게 웃었다. 나는 순간 어지러웠다. 결국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한참을 잤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었다.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큰누나가 아직 깨어 있었다. 누나는 나를 보자 말했다.

“아까 그 애한테 전화 왔었어.”

나는 잠이 덜 깬 채로 누나를 바라봤다.

“네가 계속 자길래 깨워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안 일어나더라. 그래서 잔다고 말해 줬어.”

누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늦게라도 전화 달라고 하던데.”

나는 시계를 봤다.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지금 전화하는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무엇보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런 전화를 좋아하실 리 없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열어 보았다. 그 안에는 내가 포장했던 캔디가 그대로 들어 있었다. 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 볼에는 아직도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그렇게 한 번 더 잠이 들었다. 마치 다시는 깨지 않을 것처럼.

학교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벨이 울리기도 전에 수화기가 들렸다.

“여보세요?”

그녀였다. 나는 순간 안도의 숨을 쉬었다. 혹시 부모님이 받으면 어쩌나 조금 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빠 괜찮아?”

그녀가 바로 물었다.

“응. 미안해. 어제 몸이 정말 안 좋았나 봐. 집에 와서 계속 자 버려서 밤늦게 일어났어. 너무 늦어서 전화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못 했어.”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그녀가 말했다.

“오빠 바보야. 아무리 늦어도 전화했어야지. 나 한숨도 못 잤어. 오늘 하루 종일 수업도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 어제 새벽까지 전화기 옆에 붙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안해. 거기까지는 생각 못 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제 너무 실망했지?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캔디도 너한테 못 주고 그냥 와 버렸더라. 난 진짜 바보인가 봐.”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오빠 혹시 캔디 준비도 안 해 놓고 변명하는 거 아니지? 에휴… 우리 왜 이렇게 한 번에 전달되는 게 없니. 저번엔 내 초콜릿이 그렇고, 이번엔 오빠 캔디가 그렇고.”

나도 웃었다.

“그러네. 근데 네가 준 초콜릿에 비하면 너무 초라해. 기대하면 나 진짜 너한테 이 캔디 못 줄 수도 있어.”

그녀가 바로 말했다.

“오빠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오빠가 캔디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잠시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오빠... 어제 우리 아빠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오빠 자랑하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오빠 입장 생각을 못 했어. 정말 내 잘못이야.”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 우리 아빠가 정말 별말 안 하신 거 맞지?”

나는 잠시 생각을 정리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겠지. 우리가 더 잘하면 되잖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오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게, 실망시키지 않게 내가 더 잘할게.”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가 작은 소리를 냈다.

“오빠... 형.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할게. 우리 진짜 열심히 하자.”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캔디는 일요일에 만나면 좋게. 그때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자. 갑자기 학구열이 불타오르는 것 같지 않니?”

그녀가 크게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전화기 밖까지 들릴 만큼 크게 웃었다.

이틀 뒤, 체육시간이었다.

그날은 비가 왔다. 체육시간에 비가 오면 실외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은 실내에서 이론 수업을 하거나 자율학습을 한다. 그날 체육 선생님은 학기 초이기도 하니 분위기도 풀 겸 우리에게 자기소개 시간을 주셨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기소개로 시작했다. 이름을 말하고, 어느 중학교에서 왔는지, 취미가 무엇인지. 하지만 개성 있는 친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점점 달아올랐다. 체육 선생님도 비교적 젊은 분이래 우리에게 작은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더 풀어 주셨다. 장기 자랑을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때 유행하던 유머를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사춘기 남자애들의 호기심과 튀는 발언들이 교실 안을 채웠다.

그중 특히 기억나는 친구가 있다. 자기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장가 안 갈 겁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교실이 웃음으로 한 번 흔들렸다. 그 친구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나중에 유흥업소 하나 차려서 많은 여자들이랑 자유롭게 사귀면서 살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는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 가끔 궁금해진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당연하다는 듯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어느 여중에 다니는지, 얼마나 예쁜지, 우리가 얼마나 친한지. 친구들이 “키스는 했냐?”고 묻자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당연하지.”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나는 허풍을 떨었다. 마치 연애 박사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보탰다.

“너희 여자친구 사귀고 싶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소개시켜 줄게.”

교실이 한 번 더 웃음으로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오시더니 학생들을 한번 훑어보셨다. 그리고 네 명의 이름을 불렀다. 내 이름도 그 안에 있었다. 나머지 두 명은 지금으로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한 명은 분명했다. 체육 시간에 유흥업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였다.

우리는 교실 앞에 나란히 섰다. 담임 선생님은 우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말했다.
“너희 넷은 우리 반 블랙리스트다. 내가 너희에게 별명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하나씩 별명을 붙여 주셨다. 유흥업소 이야기를 했던 친구는 ‘창녀 포주’. 그리고 나는 ‘호로자식’. 나는 순간 내가 왜 그런 별명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내가 한 말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연애 박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덜 모욕적이라서 그랬을까. 어쨌든 우리는 그날,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4 인방’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그 짓값으로 체벌을 받아야 했다.

나는 중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키가 제일 작은 편이었다. 중학교 입학식 날에는 형 입학식을 따라온 동생으로 오해받기도 했다. 그만큼 작았다. 나는 아주 개구쟁이였다. 수업 시간에 장난을 쳐도 선생님들은 웬만하면 웃고 넘겨주셨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개구쟁이였지만 날 미워하는 선생님은 없었다. 아마 공부를 제법 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집에서도 그랬다. 나는 누나가 셋인 집의 막내였다. 누나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가끔은 누나 친구들이 “동생 좀 대여해 달라”며 나를 데리고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런데 고등학교는 달랐다. 완전히 정글 같았다. 남자고등학교라는 환경도 있었겠지만, 중학교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체벌도 그랬다. 중학교 때도 체벌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들 장난 수준이었다. 고등학교의 체벌은 달랐다. 훨씬 거칠고 노골적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선제압용 시범 케이스가 되었다.

허벅지에 장작불을 올려 놓은 것은 것 같았다. 나를 억울한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사실을 학교 밖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그 시절에는 거의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요즘처럼 부모가 학교에 찾아가 항의하는 시대가 아니었다. 어지간히 맞고 와도 대부분 그냥 넘어가던 시절이었다. 선생님의 권위라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오빠, 잘 지냈지? 어쩜 그렇다고 전화도 안 하냐?”

나는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좀 가라앉아 있었다.

“우리 약속했잖아.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에 보자고.”

그녀가 살짝 투정을 부렸다.

“첫, 참 잘났어. 결국 내가 더 보고 싶었던 거지 뭐.”

“아니야.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번 일요일 말고… 토요일에 보는 건 어때? 토요일은 오전 수업만 있으니까 오후에 보자.”

그녀가 바로 말했다.

“흥, 아냐. 그냥 일요일에 봐. 또 내가 보쳐서 토요일 보는 걸로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웃음이 났다. 언제부터인지 그녀에게서 “오빠”라는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있었다. 그녀의 새침한 양탈 때문이었을까. 나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야. 내가 보고 싶어서 그래. 빨리 보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오빠가 보자고 해서 보는 거다. 히힛.”

토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등교를 하면서 곧장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가야 했기 때문에 캔디를 책가방에 넣었다. 가방 속에서 캔디들이 부스럭거렸다. 오늘은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았다. 가방 속 캔디를 다시 한 번 만져 보았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다. 지난주에 쓰지 않고 남겨 둔 용돈까지 있으니 마음도 든든했다. 오늘은 그 생과일 카페에 가야지. 이제 스케줄도 확실하다. 학교가 끝나면 바로 그곳으로 간다. 모든 것이 분명한 하루였다. 모든 것이 또렷했다. 완벽한 하루가 밝고 있었다.

유난히 길게 느껴지던 수업이 끝나고 종례 시간이 다가왔다. 이제 곧 학교를 나가면 그녀를 만나러 갈 수 있었다. 그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다.

“책가방 전부 열어. 소지품을 책상 위에 다 올려 놔.”

토요일이라서였을 것이다.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자율학습을 하니 학생들이 어디로 새어 나갈 일이 없지만, 토요일은 달랐다. 아이들이 하나둘 가방을 뒤집었다. 책상 위에 물건들이 쌓였다.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옷이었다. 학교에서 금지된 사복, 신사화, 무스 스프레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대개 밤에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려는 애들이 준비해 오는 물건들이었다. 담배도 몇 개 나왔다. 적발된 아이들은 차례로 교실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내 차례가 왔다. 내 가방에서는 사탕이 나왔다. 캔디였다. 나도 교실 앞으로 나가야만 했다. 순간 나는 조금 의아했다. 사탕이 유해한가? 왜 내가 불러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이 자식. 내가 경고했지. 지난주 화이트데이도 부족해서 오늘도 연애질하러 가는 거냐? 선생님 말이 우습지?”

사실 그때 고등학생의 이성 교제는 꽤 엄격하게 통제되던 시기였다. 교칙 위반까지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분명 그랬다. 조금 위 세대에서는 연애 문제로 정학을 받는 일도 있었다고 들었다.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던 시절이었다. 선생님이 비웃듯 말했다.

“호로자식 별명답네. 옆드려.”

나는 다시 옆드려 뺄었다. 매가 계속 내려왔다. 얼마나 맞았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선생님은 분이 풀리지 않은 것 같았다. 갑자기 내 책상 위에 있던 캔디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교실 바닥에 내던졌다. 캔디가 바닥에서 튀었다. 그 위를 선생님이 발로 밟기 시작했다.

“학생 놈의 새끼가 연애나 하고! 분명 내가 경고한 게 며칠 전인데 이 따위로 행동을 해?”

나는 순간 정신없이 선생님 다리를 붙잡았다.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사탕은… 사탕은 밟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캔디는 바닥에서 완전히 부서져 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넌 오늘 밤까지 교무실에 앉아서 반성문 써. 알겠나?”

나는 깨진 캔디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10 시까지 나는 교무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다. 전화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끝내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밤 10 시가 다 되어서야 교무실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다시 교실로 돌아가 휴지통을 뒤지기 시작했다. 산산이 부서진 캔디의 잔해를 하나라도 더 주워 모아 가방에 담았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다.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집 앞에는 그녀가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을 열어 완전히 부서져 버린 사탕을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그녀는 두 손으로 그 사탕을 꼭 감싸 쥐더니 내 머리를 끌어안아 자신의 품으로 당겼다. 나는 왠지 눈물이 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내 머리카락을 계속 쓰다듬어 주었다.

짐짓 울지 않았던 것처럼 눈을 비비고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미안해.”

그녀는 손을 내 가슴 위에 올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미안해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오빠에게 캔디를 받아서 충분히 행복해.”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캔디 상태를 보니 어둠의 동굴 속 불 뿜는 용을 해치우고 왔구나. 그러므로 나의 기사여, 나를 기다리게 한 죄가 크나 이 공주의 이름으로 사하노라.”

나는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오빠, 우리 늦었지만 생과일 카페 가 볼까? 토요일이라 아직 시내에는 사람이 많을 거야.”

나는 잠시 망설였다.

“집에 늦어도 괜찮겠어?”

“아냐, 오빠. 전혀 걱정 안 해도 돼. 가자, 응?”

“그래, 그럼 그럴까?”

우리는 어두운 골목을 벗어나 버스가 다니는 큰길로 걸어 나왔다.

“오빠, 다리 아파? 왜 절뚝거려? …잠깐. 어머머,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진짜!”

그녀의 시선을 따라 뒤돌아본 그곳은 내 허벅지 뒷쪽이었다. 절반쯤 굳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지난번 맞은 곳을 또 맞았더니 그 자리가 터진 모양이었다.

“아,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오빠, 무슨 소리야. 아양, 속상해. 어떻게 이래?”

그녀는 내 허리를 부축하며 근처 벤치로 이끌어 앉혔다.

“오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금방 올게.”

“어디 가려고?”

“그냥 잠깐 기다리면 돼. 기다려~”

그녀는 쏜살같이 차도를 가로질러 사라졌다. 혼자 앉아 있으니 벤치 끝에 걸터앉아 있음에도 허벅지 통증이 올라왔다. 그녀는 자신의 말대로 금세 다시 나타났다. 하얀 비닐봉지 안에는 이것저것이 담겨 있었다.

“어쩌지, 어쩌지…”

그녀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손톱을 깨물고 안절부절못했다.

“왜, 무슨 일인데. 난 괜찮아. 더 늦기 전에 빨리 생과일 카페 가자, 응?”

“오빠, 지금 그게 문제야? 바보야? 아, 저쪽으로 가자.”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공원 뒤편 어두운 곳으로 이끌었다.

“너무 어두워. 우리 나가자. 왜 이래.”

그녀는 갑자기 내 양손을 잡았고 어둠속에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다. 혹시 또 뽀뽀? 나는 잠시 당황스러운 설렘에 휩싸였다.

“오빠, 대답해. 내 얼굴이 보이냐고.”

그녀의 첫번째 물음이 내 귀에는 달지 않은 모양이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아니. 거의 안 보여.”

“그래? 그럼 바지 내려.”

“뭐? 무슨 소리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빠 소독해야지.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창피할 것 없어.”

“아... 안 돼. 나 정말 괜찮아. 싫어.”

그녀는 내 가슴을 찰싹 때리며 말했다.

“제발 내 말 들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바지 내릴까, 아니면 오빠가 내릴래?”

“아, 알았어. 내가 내릴게.”

나는 천천히 바지를 내렸고, 철쭉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내 뒤쪽으로 돌아앉는 느낌이 났다. 그리고 무릎 쪽부터 그녀의 차갑지만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졌다. 그 손길이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더니 이내 내 상처 부위에 닿았다.

“아!”

상처가 쓰렸다. 그녀도 깜짝 놀랐는지 손길을 거두었다.

“오빠, 아파도 좀만 참아.”

비닐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다시 내게 말했다.

“오빠, 쓰릴 거야. 남자답게 참을 거지?”

“으응...”

허벅지 살점을 쥐어뜯는 것 같은 통증이 올라왔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했어.”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나의 기사님, 역시 불 뿜는 용도 쓰러뜨린 용감한 기사님이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후~ 해 줄 거예요.”

그녀의 따스한 입김이 상처 주위를 휘감았다. 수양버들 사이를 지나가는 봄바람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입김이 불규칙해졌다. 나는 곧 그 입김의 정체를 알아챘다. 그녀는 거친 호흡을 참으며 울고 있었다.

“너 우는 거야?”

“아니야.”

하지만 이미 그녀의 목소리도 건잡을 수 없이 잠겨 가고 있었다.

“내가 가만있지 않을 거야. 오빠 털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오빠 걱정 마. 내가 지킬 거야.”

나는 바지를 올리고 뒤돌아 서서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나 정말 괜찮아.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야. 오빠 잘못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놓을 테니까 오빠 걱정 마.”

그녀는 무엇인가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다.

“무슨 말이야?”

그녀는 내가 말을 이어 갈 틈도 없이 내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입술을 포개 채 서 있었다.

저번에 그녀가 내 볼에 뽀뽀를 했을 때처럼, 집에 들어와 내 방에 누운 나는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긴 잠에 빠져들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다. 나는 여느 아침처럼 학교로 향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아치가 괴물의 아가리처럼 느껴졌지만, 나는 그곳을 진군하듯 묵직한 걸음으로 지나갔다.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선생님의 호출이 있었다.

“너, 토요일에 다른 애들은 다 반성문 제출했는데 왜 너만 안 냈어?”

나는 말없이 서 있었다.

“선생님이 시키면 할 것이지, 내 말이 말 같지 않은 거냐?”

“아닙니다. 제가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교칙 어디에도 남녀 교제가 학칙 위반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탕은 위험물도 아니고 학내 반입 금지 물품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부당하다는 거야? 네가 잘못이 없다는 거지, 지금?”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선생님이 사탕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저를 체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얼굴이 단단하게 굳었다.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너 토요일 밤에 집에 안 들어가고 어디를 갔어?”

“그건 제 개인 시간입니다.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릴 의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순간 교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선생님의 손바닥이 내 뺨을 강하게 때렸다.
나는 뒤로 밀려 넘어졌다.

“일어나.”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다시 말해 봐.”

“선생님이 사탕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저를 체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먹이 날아들었다. 얼굴과 어깨로 충격이 이어졌고, 나는 계속 뒤로 밀려났다.
뒤로 넘어지지 않으려 허우적거리던 내 손에 잡힌 의자가 허공을 갈랐다. 의자는
교무실 저편으로 날아가 떨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내 몸 위로 담임 선생님의
발길질이 곧바로 이어졌다. 놀란 다른 선생님들이 급히 달려들어 담임 선생님의
몸통과 팔을 붙잡아 나에게서 떼어 놓았다. 나는 곧 교무실 옆 학생지도실로
옮겨졌다.

어머니가 불러 오셨다. 어머니는 연신 허리를 숙이시며 눈물을 보이셨지만,
교무실에서는 징계와 관련된 사무적인 말들만 오갔다.

“그럴 애가 아닌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죽도록 때려서라도 사람 만들어
주시고, 제발 퇴학만은 거둬 주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시며 머리를 조아리셨다. 어둠이 내리고 나서야 어머니와
나는 교무실 밖을 나설 수 있었다. 어머니는 운동장 옆 수도가를 지나시다
수도꼭지를 틀고 어푸어푸 소리를 내며 세수를 하셨다. 코를 풀고 손을 닦으신
뒤에는 아무 말씀 없이 먼저 휘이휘이 교문 밖을 나가셨다. 나는 해가 떨어진
거리를 한참 서성이다가 밤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갔다.

집은 무거운 침묵과 어둠으로 휩싸여 있었다. 큰누나가 나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골목 후미진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내 등을 세게 쳤다.

“너 어찌려고 그랬어? 너, 그 애 만나고 이상해진 거 알지?”

“아까 그 애한테 전화 왔었는데,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야단쳐 났으니까 너도 애초에 연락할 생각하지 마. 알겠어? 엄마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넌 인간으로서 할 짓이니, 이게?”

나는 아무 말 없이 큰누나를 올려다보았다. 목구멍에 바위가 걸린 것 같았다. 눈은 바짝 말라 쓰라렸다. 나는 누나를 살짝 밀치고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뒤에서는 큰누나의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몇 일이 지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다. 퇴학 취소 처분을 내려준다는 내용이었다. 전혀 예상 밖이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대개 퇴학으로 끝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때였다. 어머니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이 개놈 새끼, 콕 퇴학이나 당하고 사회 나가 돈이나 버는 게 나을 뻔했는데 너 살려 주신단다. 너 이놈의 자식, 한 번만 더 사고쳤다가는 공장이나 취직해, 이놈아. 애저녁에 틀렸어, 이놈아.”

누나가 옆에서 말렸다.

“엄마, 그만해. 재도 많이 반성했을 거야. 그전엔 사고 한 번 안 쳤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마.”

어머니가 한탄하셨다.

“이놈의 인생,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고. 박복한 년의 인생, 예휴.”

누나가 다시 끼어들었다.

“엄마, 제발 그런 말 이제 그만 좀 해. 너도 빨리 준비해. 얼른.”

저번에 학교에 불러 나가셨을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던 어머니가, 퇴학 취소를 해 준다는 말에 이렇게 나를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진짜 내가 공장에서 돈이나 벌 기회를 놓쳐서 아쉬우신 건지, 아니면 긴장이 풀리셔서 막 쏟아 내시는 말씀인지 헷갈렸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니는 누나들에게도 여자가 학교는 그 정도 다녔으면 됐다고 하시며 빨리 취업이나 하라는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셨다. 어머니는 몹시 지쳐 계셨다.

“물건 떼다 놓은 거 정리해야 하니까 니가 먼저 학교 가서 딱 무릎 꿇고 있어, 이놈 자식아.”

어머니는 급하게 집을 나섰다. 어머니와 같이 방과 후에 오라는 연락이 있었지만, 어머니 말씀대로 나는 먼저 학교로 향했다. 며칠 만에 들어선 교정은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홍매화가 지고 벚꽃이 흐드러지기 시작했다.

교무실에 들어가자 수업에 들어가지 않은 몇몇 선생님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쳐다보았다.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교장실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라고 교무주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교장실 앞에 무릎을 꿇은 나는 문 안에서 새어 나오는 어렴풋한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우리 강 사장님하고 신 선생하고는 구면이지요?”

“네, 교장선생님. 강사장님이 저보다 5년 동문 선배시죠.”

아마도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 같았다.

“동문 모임 때 몇 번 뵈었었지만 요즘 이렇게 자주 뵈네요. 허허…”

그리고 낯선 듯하면서도 낯익은 목소리였다.

“우리 신 선생뿐만 아니라 최 선생, 문 선생하고도 같은 학년이었고, 그 외에도 화학 김 선생님은 1년 선배님이신데다가… 뭐, 여기 올 때마다 반가운 얼굴들 봐서 저는 좋죠. 허허.”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이고, 저만 진골이 아니었네요.”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교장님, 무슨 말씀을. 허허허.”

교장 선생님이 자못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 동문회장님께서 항상, 참 음으로 양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학교 일에 신경 써 주시니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
송구스럽습니다.”

낮선 사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별말씀을요. 현장에서 매일 학생들과 씨름하실 선생님들께서 더 수고로우시죠.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얼마나 다루기 힘든지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사춘기 딸
하나 때문에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러는 사이 어머니가 도착하셨고, 나와 어머니는 교장실로 들어갔다. 낮선
목소리의 사내를 보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분은 나를 쳐다보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고 계셨다.

교장 선생님이 중앙에 놓인 소파에 앉아 계셨고, 그것을 중심으로 좌우로 놓인
세 칸짜리 소파 중 오른쪽에는 담임 선생님이, 왼쪽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어머니와 나는 빈자리를 사이에 두고 교장 선생님 맞은편에 섰다. 교장
선생님이 입을 열었다.

“넌 이미 퇴학감이라는 걸 알고 있지? 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퇴학당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 거다. 하지만 이렇게 너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겠다. 한 달 정학 처분을 하되, 매일
학생지도실에서 반성문을 작성하고 원래 담임 선생님 밑에서 진심으로 사죄하며
학교에 다녀라.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다시 실망시키면 두 번 기회는 없을 거야.
알아서 잘하거라.”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숙이셨다.

“이건 다 제가... 아버지 없이 버릇없이 키운 죄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강하게 눌러 내리며 재촉하셨다. 나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는 학생지도실로 들어가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떠나자 나는 홀로 학생지도실에 남겨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이리 나오너라. 이분이 네 퇴학을 막아 주신 분이다. 가신다니 나가서 인사드려라.”

나는 그녀의 아버지 뒤를 따라 학교 교정으로 나왔다. 익숙한 은빛 세단이 세워져 있었고, 교감 선생님도 그곳까지 배웅 나오셨다. 그녀의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께 말씀하셨다.

“여기까지 나오실 필요 없으신데. 바쁘실 텐데... 잠깐 저 아이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학교를 후원해 주시는 것도 감사할 따름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기게 해서 신경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그럼 살펴 들어가십시오.”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교무실로 사라지셨다. 그녀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 정말 실망스럽구나. 이렇게 어른들을 실망시키다니. 어머니도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알겠지? 이번 일은 우리 아이 부탁으로 내가 손을 쓴 거다. 다만 조건이 있어. 우리 아이를 만나지 않는 조건이야. 우리 아이도 동의한 이야기고. 너만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해 준다면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단다. 지금 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어. 어머니도, 나도,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오늘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할 수 있겠니? 그 애를 위해서라도 내 말대로 해 줄 수 있다고?”

나는 눈물이 가득 차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네” 하고 소리 내고 싶었지만, 이미 목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내 어깨 위에 손을 툇 얹었다가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차에 올라 먼지를 일으키며 교정을 빠져나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둠의 동굴 속, 불을 뿜는 괴물의 아가리 한가운데로 내던져졌다.

퇴학은 면했지만, 나는 매일같이 담임 선생님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 퇴학당해야 마땅한 녀석이 여전히 제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하는 듯했다. 자신의 권위가 나 같은 놈의 등 뒤에 선 힘 앞에서 꺾였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으리라. 물론 그것이 내 권력일 리는 없었다

뭐라도 눈에 거슬리면 매가 날아들었다. 나는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물러난다면, 나는 물론이고 어머니도 더는 물러날 곳이 없었다.

참고 또 참았다.

하루에 세 번 욕을 먹어야 하루가 끝났다.

아침 조회 욕, 오후 종례 욕, 국어 수업 시간 욕.

어쩔 때는 수업의 절반을 내 욕으로 채우기도 했다.

나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반의 분위기는 늘 축 처져 있었다. 쉬는 시간에도 다른 반은 왁자지껄했지만, 우리 반은 파도에 휩쓸린 해초처럼 몇몇 애들만 책걸상 사이를 휘적이며 돌아다닐 뿐이었다.

학기 초 자기소개 시간에 학급 분위기를 망치는 네 명 중 하나였던, ‘창녀 포주’라는 별명이 붙은 아이는 그때도 우울하고 냉담했지만 지금은 더 심해져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나에게 말했다.

“넌 네 별명 어떻게 생각해?”

내 별명은 호로자식이었다.

나는 그를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그는 애써 내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차라리 호로자식이 낫지. 엄마 없는 자식은 뭐라고 부르는 말 없나?”

“너 여자 때문에 담임하고 싸웠다면? 너야말로 유흥업소 차리고 자유롭게 여자 만나야지. 여자는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얼굴을 책상에 갖다 댄 채 그 녀석에게서 고개를 돌렸다.

더는 듣기 싫다는 걸 알았는지, 그 녀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톹 올리더니 말했다.

“엄마한테 잘해라. 여자는 남자를 배신하지만 아들은 배신 안 하는 거니까.”

“어이, 지훈이~.”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사랑의 노예, 사랑의 포로. 이게 얼마 만이냐?”

나는 걸음을 멈췄다.

“친구 제쳐 두고 연애하더니, 꿀 빨러 다니느라 바쁘셨나?”

승재였다. 늦은 밤 하룻길 골목의 어둠 속에서 그가 몸을 비틀며 걸어 나왔다.

“이건 뭐 전화도 안 되고, 이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꼭 오게 만들어야겠어?”

그가 얼굴을 들이밀며 웃었다.

“어디 사랑에 빠진 꼬마 얼굴 좀 봅시다. 오랜만이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응... 오랜만이네. 미안해. 내가 너무 연락이 없었지.”

승재가 과장되게 고개를 끄덕였다.

“으응, 아니 아니 아니죠~. 바쁘신 몸인데 저 보러 올 시간이 어디 있으셨겠습니까?”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동안 잘 지냈지?”

“소인은 언제나 꽃밭을 날아다니며 유유자적.”

그가 손을 휘저었다. 그러더니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리 사랑의 포로가 되신님은 어떠셨나? 꿀맛 좀 보셨나?”

그의 말투가 거슬렸다.

“에그머니나.”

승재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 쌍관떼기가 어찌 된 일이오. 완전 찌그러진 개밥그릇이 됐네.”

그가 씨익 하고 웃었다.

“여왕거미한테 쪽 빨리셨나?”

“그만둬.”

나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 학교는 잘 적응하고 있지?”

“아이고, 이런 관심까지 주시니 망극하옵니다.”

나는 그를 노려봤다.

“내가 연락 안 한 게 그렇게 서운했어?”

승재가 피식 웃었다.

“뭐, 연락이야 소인이 했어야 했는데 당최 전화번호가 바뀌어 버려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시다요~.”

승재의 목소리가 계속 거슬렸지만,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화번호가 바뀌어? 누구 전화번호가?”

“누구 전화번호는 누구 전화번호겠니. 니네 집 전화번호지. 빙신, 지네 집 전화번호 바뀐 것도 몰라요?”

나는 잠시 멍해졌다.

“다 들었어, 자식아.”

승재의 말투가 갑자기 가라앉았다.

“빙신아. 친구 제끼고 연애했으면 잘돼야지. 이게 뭐냐? 하... 내가 그때 너를 말렸어야 했는데. 순진한 너를 퍽 하니 갖다 바치는 느낌이 썰하더니만...”

그리고 그가 말했다.

“퇴학 맞을 뻔한 거... 개 아버지가 살려줬다며?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나는 숨을 삼켰다.

“너 개 만났어?”

“미쳤니, 내가 개를 만나게? 그전에 너한테 개 대신 초콜릿 전해 준 민지 있지?
개한테 다 들었다. 퇴학을 맞을 뻔한 놈이 이 형님한테 전화 한 통 안 해?
미친놈.”

“개는... 잘 지낸대?”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승재가 비웃었다.

“형님 안부는 개뿔이지요. 그래, 아주 궁금해 죽겠지?”

그가 말을 이었다.

“아버지란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학교까지 차로 실어 나른다는데다가, 니네 집
전화번호까지 바뀌었으니 이걸 뭐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지. 개네 집에 전화는
해봤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하겠지. 개네 아버지가 받으면 넌 바로 퇴학이고 빼도 못 추릴 거다.”

승재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말을 이었다.

“어차피 잘됐어. 그런 년하고 헤어지길. 넌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모르나 본데,
얼굴 반반하고 부잣집 외동딸이면 지 멋대로인 거 뻔한 거 아냐?”

“정신 차리고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해, 임마. 작년부터 니네 집 풍지박산 나고
니까지 이렇게 속을 썩이면 어머니가 어떻게 사시겠냐.”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소문도 안 좋은 애야. 벌써 중 1 때부터 키 크고 예쁘다고 고등학교 형들이
훗바닥을 널름거리며 쫓아다녔다던데, 개네 아버지가 저러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그만하라고, 이 새끼야.”

승재가 나를 쏘아보며 말했다.

“이 새끼가 여자 때문에 친구 치겠네? 어차피 그런 녀은 니가 자기 때문에 질질
짜고 망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꼴 보는 재미로 사는 년이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내 주먹이 승재의 눈두덩이에 꽂혔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눈깔이 돌았나.”

내 눈앞에도 번개가 번쩍하고 터졌다. 승재는 나보다 훨씬 크고 싸움도 잘했다.
내가 당해낼 수 있을 리 없었다. 승재는 나를 깔고 앉아 양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 새끼야!”

그 순간 나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승재의 새끼손가락을 꽉 잡아 꺾어
버렸다.

“아악!”

승재가 손가락을 움켜쥔 채 쓰러졌다. 한동안 우리는 훗바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

“개새끼… 삼 년 지기 친구는 헌신짝처럼 버리는 새끼… 그래, 그년하고 잘해 봐라. 내가 이 편지 니 앞에서 싹 불질러 버리려다가 그냥 너한테 준다. 이 편지 읽고 평생 그년 때문에 망가져라.”

편지 한 통이 내 얼굴을 때렸다.

“그년이 또 어떤 사탕발림을 써놨는지는 모르겠지만, 넌 그년 때문에 인생 조절 거야. 응, 그래. 이미 반쯤은 조져 놔네. 근데 또 이따위 편지를 써? 나쁜 년. 앞으로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연락할 생각도 꿈에 꾸지 마. 나는 간다.”

승재는 통증 때문인지 한쪽 손으로 다친 손을 감싸 쥔 채 비틀비틀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다.

그다음 날, 영망이 된 내 얼굴을 본 담임 선생님은 싸움박질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또 매타작을 했다. 어둠 속을 뚫고 새벽같이 학교로 향했기에 어머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 그것만은 천만다행이었다.

어쨌든, 맞았다고 또 맞았다

플래시를 비춰 보았지만 아무래도 찾아지질 않았다. 그날 밤 이 근처 어딘가에 던져 놓은 것 같은데, 얇은 편지봉투는 바닥에 딱 붙어 버린 듯 좀처럼 눈에 띄지 않았다. 책상을 들어내고서야 겨우 편지봉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편지를 읽고 평생 그년 때문에 망가져라던 승재의 말이 귀에 맴돌았다.

밤에 볼 때는 몰랐지만, 분홍색 편지봉투는 알록달록한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편지봉투를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 열었다. 은은한 향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 편지지에서 정말 향기가 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에 대한 기억이 내 후각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확인이라도 하듯 편지지를 코에 가까이 댔다.

그녀의 향기였다.

어렸을 적 큰누나 방에서 몰래 맡아 본 향수 냄새와는 달랐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입술을 포갠 때 스치던 바로 그 향기였다.

나는 긴장이 한순간에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다..

오빠,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오빠한테 맞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았았더라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았았을 텐데. 미안해.

“숲속의 정령들이 당신의 군사요. 아이기스가 될지니 두려워하지 마오, 나의 기사여.”

공원의 어둠 속에서 그녀가 나를 안아 주며 았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나는 다시 편지에 눈을 돌렸다.

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빠에게 분명 이야기았고, 아빠가 그날 아침에 학교를 방문하셨다고 았는데, 나도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았어.

아빠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께, 사탕을 가져온 이유로 체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분명 말씀하셨다고 나에게 이야기았어. 그런데 그날 오후 오빠가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렸다고 아빠가 더 이상 나를 만나지 말라고 았셨어. 오빠,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줘. 어차피 내가 오빠를 부추기게 된 셈이 돼서 오빠가 그랬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난 았고 싶어.

퇴학을 막아 주는 조건으로 오빠를 안 만나았겠다고 아빠에게 약속을 았지만, 정말 았쩔 수 았는 선택이었어. 오빠, 조금만 참아. 그리고 견뎌 줘. 내가 곧 오빠에게 갈게. 오빠, 그럴 수 있지? 지금은 모두를 위해, 오빠를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오빠 어머니를 위해 우리가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할 때인 것 같아. 많이 기다리게 하진 았을게. 오빠, 꼭 참고 기다려 줘. 았았지?

with love

“짐이 그대의 미카엘이 되어 나아가니 적들은 털끝조차 건드리지 못하게 될지어다.”

그녀가 했던 말이 또다시 환청처럼 내 머리를 휘감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나의 구원자였을까.

아니면 내가 이미 죽은 뒤에 도착한 구원자였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나를 다시 감옥에 가두고

열쇠를 가져가 버린

어둠의 동굴 속

불을 뿜는 용의

주인이었을까.

교내 장미원에 장미가 흐드러지게 필 무렵이면, 바로 옆 여고에서는 장미축제가 열렸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남고 대표와 여고 대표가 함께 꾸민 합동 공연이 있었고, 바로 그날만큼은 남고생 전원이 그 공연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아침부터 우리는 선생님들의 협박을 들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년도 축제에서는 3학년 남학생들이 공연 관람 뒤 여학생 교실에 난입해 방석 등을 훔쳐 가는 난동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일로 적지 않은 3학년 남학생들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해야 했다. 그 때문이었는지 우리 남고 쪽에서는 며칠 전부터 이 행사에 대한 사전 단속이 한층 심해졌다. 우리 역시 설렘과 기대보다는 긴장감이 더 컸다. 누구 하나라도 돌발행동을 하면 군중심리가 어떻게 번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와 열을 맞춰 군인들처럼 장미원을 가로질러 운동장으로 들어갔다.

눈이 부실 정도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은 장미가 부담스러울 만큼 선명한 원색을

드러내며 내 눈을 아프게 했다. 운동장에 들어서자 여고생들이 양쪽 스탠드에서 일어나 박수로 우리를 맞이했다. 선생님들의 경고를 들을 때의 긴장감은 날아가 버렸는지 아이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장미원에는 빨간 장미가 피어 있었지만 내 얼굴에는 온통 청춘의 열꽃이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 얼굴은 비뚤어져 있었다. 그때는 그저 긴장 때문에 일어나는 경련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야 그것이 구안와사였다는 걸 알았다.

여고생들은 운동장 정면에 놓인 무대를 중심으로 양쪽 스탠드에 앉아 있었고, 남고생들은 운동장 한가운데 흙바닥에 다리를 포개고 앉아 있었다. 오월의 봄바람이 운동장을 휩쓸 때마다 우리는 한쪽으로 고개를 돌려 먼지를 피해야 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디 당구장에서 빌려 왔는지 긴 당구채 같은 것을 손에 든 채 우리 앞에 도열해 계셨다.

남녀 학생 대표 둘이 무대에 올라와 여고와 남고 교장 선생님 앞에 선 채 선서를 했다.

“하나! 우리는 건전한 남녀관계를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그다음은 듣기도 싫었다. 피식 웃음소리가 내 입가에서 새어 나왔다.

“웃어?”

작지만 분명한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였다. 선생님은 학생들 사이를 오가다가 마침 내 옆을 지나고 계셨다. 선생님은 당구채 끝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있던 내 허벅지를 아주 세게, 그러나 조용히 눌러 찍었다. 비명이 튀어나올 것 같았고 내 얼굴은 일그러졌다. 스탠드에 있던 여학생 하나가 내 모습을 눈치챈는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옆 친구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더니 내 쪽을 가리키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리고 그 공연 내내 내 한쪽 얼굴은 고삐 풀린 야생마처럼 지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엄마, 애 얼굴 좀 봐. 어떻게 된 거야? 너 언제부터 이런 거야?”

엄마도 짐짓 놀라는 눈치였다.

“미련한 놈이 아프면 아프다고 할 것이지. 자기가 괜찮으니까 아무 말 안 한 거니까 제 놈이 알아서 하라 그래라.”

“엄마, 무슨 말이 그래? 오늘 누나랑 병원 가자, 응?”

“학교 가야 해. 안 가면 또 담임에게 맞아 죽어.”

“지금 학교가 문제야, 이 미친 녀석아. 그렇지 않아도 너 여드름 때문에 이 누나가 숨이 찢어지는데, 이제는 입까지 돌아가니 말이 되니? 근데 어디 병원으로 가야 맞는 거지?”

나와 누나는 동네 한의원으로 가 보았다. 원장은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였다.

“흠… 이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일단 침은 맞아야 하고, 몸이 허해서 한약도 좀 먹는 게 좋겠네요…”

“그래요? 그럼 나을 수 있을까요?”

누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그건 뭐, 초기 치료가 제일 중요한데 이걸 도대체 며칠이 지나버려서…。 어떻게 식구들이 모를 수가 있었을까, 참…”

원장은 말끝을 흐리더니 덧붙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약이 좀 비싸거든요.”

한의사는 돋보기안경 너머로 누나와 나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었다.

“돈은 걱정 없으니까 치료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오늘은 침부터 맞고, 한약값 결제하면 이틀 뒤쯤 약이 나올 거예요.”

누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늘은 침 맞은 것만 일단 결제하고, 한약은 내일 결제해서 나중에 받을게요.”

“네, 그럼 결제하시면 바로 약 만들 테니까 되도록 빨리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나는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했다. 엄마는 한참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으셨다. 그러다 획 돌아앉으시며 말했다.

“그냥 놔둬라. 지 애비도 얼굴값 하다가 죽었는데, 싹수 노란 놈이 여자 때문에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네. 피는 못 속인다고, 지 애비처럼 살 바엔 그냥 저렇게 살라고 해라.”

엄마와 누나는 싸웠고, 나는 조용히 집을 나왔다.

가로등 불빛을 피해 한참 동안 정처 없이 걸었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기도 하고, 하릴없이 발치의 돌맹이를 차기도 했다. 몸을 돌려 가로등 불빛에 시선을 멈추었다가, 잠시 쪼그려 앉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다시 일어나 머리를 쓸어 넘겼다. 가로등 기둥에 붙은 광고 스티커를 손톱으로 긁다가 손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머리를 다듬고, 립밤 같은 것을 입술에 바른 뒤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행인이 다가오면 얼른 가방에 넣고 단청을 피우듯 돌아섰다가, 행인이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하얀 얼굴을

들어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김이 차가운 밤공기 사이로 희미하게 퍼져 나갔다.

가로등 불빛이 밝은지 그녀 얼굴이 밝은지 헛갈리는 사이에, 그녀는 허리를 숙여 양쪽 다리를 주먹으로 쿵쿵 치기도 하고 주무르기도 했다. 하얀 손목을 드러내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군 채 가지런한 검은 로퍼를 내려다보다가, 마침내 무언가 결심한 듯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한참 그쪽을 바라보다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순순히 물러날 애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등하교할 때마다 마스크와 모자를 썼다. 혹시 내가 그랬듯 그녀도 어디선가 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것들은 내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최소한의 소품이었다.

“오빠~!”

젠장. 뒷통수를 후려치는 그 목소리가 그녀인 줄 알면서도 나는 움찔하지 않은 척 그대로 걸었다. 마스크도 소용없이 없었다.

나는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내 뒤에서 나를 와락 껴안았다.

“오빠, 키가 많이 컸네.”

나도 뒤에서 안기는 그 느낌이 어쩐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그녀는 뒤에서 나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놓아주지 않았다. 내가 그녀의 손을 풀어내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손깎지를 끼며 나를 붙들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잠시만이면 돼. 가만히 있어 줘.”

나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그녀의 손을 풀고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녀의 양손을 한 번 잡았다가, 가지런히 놓아주듯 밀어냈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오빠, 감기 걸렸어? 무슨 일이야?”

나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며칠 전 그녀를 바라보았던 담쟁이 그늘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따라왔다. 담쟁이 넝쿨 그늘이 내 얼굴을 어느 정도 가려 줄 즈음,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냥 거기 서 있으면 안 돼? 감기 걸려서 가까이하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오빠. 난 그런 거 상관 안 해.”

나는 짐짓 그녀를 밀어내며 말했다.

“안 돼. 좀 떨어져 있어.”

그녀는 잠깐 실망한 기색을 보였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빠, 미안해. 그동안 원망 많이 했지? 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당장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오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 다 알아. 오빠, 그곳에 있지 마. 그곳은 오빠를 무너뜨릴 거야. 이제 진짜 내가 같이 있어 줄게. 이제 가짜 지원군은 필요 없어. 내가 진짜야. 내가 오빠 옆에서 싸울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마치 스스로를 다잡듯 말했다.

“숲의 정령은 가짜였어. 애초에 아이기스는 없었어. 하지만 이제 정말 내가 오빠의 미카엘이 될 거야.”

나는 짐짓 무감각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나 이제 겨우 마음 잡고 학교 다니고 있어. 난 모두를 실망시켰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어. 아이기스, 미카엘? 정신 차려. 우린 지금 동화 속에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차가운 교실 바닥이야. 나한텐 방패 따위 필요하지도 않았고, 있어도 날 막아 주진 못해. 넌 너 하나의 문제겠지만 난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가 말했다.

“오빠가 얼마나 힘든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나도 알아. 그리고 미안해. 하지만 나도 이게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야. 오빠와 나의 문제야. 내가 동화 속에 있는 걸로 보여? 아니야, 오빠.”

잠시 말을 멈췄다가,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 오빠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쨌든 오빠,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해. 정말 그곳은 오빠를 무너뜨릴 거야. 오빠,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 지금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알아. 더 늦기 전에 나와야 해.”

내가 그녀의 말을 낚아챘다.

“넌 모든 게 네 생각한 대로 된다고 믿는 거니? 결국 네 감정대로 실컷 떠들다가 상황이 망가져도 넌 돌아갈 구석이 있지? 난 없어.”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응시했다.

나는 깊게 눌러쓴 모자 아래로 눈빛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토르소만 보고도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알 것 같았다.

한참 숨을 고르던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내가 오빠 왜 좋아했는지 알아? 오빠에게 초콜릿을 주기 전에 두 달 동안 내가 오빠의 어떤 모습이 좋았는지 알아?”

나는 내가 방금 뱉은 말들이 후회 되었다.

“오빠 웃음이야. 오빠처럼 맑고 밝게 웃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한 시간을 보면 한 시간 내내 웃고 있었고, 두 시간을 보면 두 시간 내내 웃고 있었어. 그리고 오빠랑 만나고 나서 제일 좋았던 건, 오빠 이야기 듣는 거였어. 그때의 오빠 표정도 좋았어. 탱크를 타고, 헬기로 하늘을 날고, 공룡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것 같은 그 표정. 난 그 표정이 좋았어. 하지만 오빠, 지금 오빠 모습을 봐.”

내 몸이 흠칫 떨리며 마스크 안쪽으로 작은 경련이 일었다.

“오빠, 더 이상 읽으면 안 돼. 그곳에서 도망치라고, 이 바보야!”

갑작스러운 그녀의 폭발에 나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녀의 발끝만 응시했다. 그녀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타이르듯 말했다.

“오빠, 내가 다 준비해 놔어. 오빠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나랑 같이 하자, 응? 자, 봐. 여기가 내가 알아본 곳인데, 그곳 선생님께서 오빠 성적 정도면 2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하셨어.”

나는 가슴이 답답했다. 그건 내 중학교 성적이었다. 지금 나는 학급 안에서도 성적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이었다. 어둠 속에 어스름하게 보이는 종이는 다름 아닌 검정고시 학원 안내서였다.

왜 하필 전학도 아닌 검정고시였을까.

“너, 나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겨우 자퇴하고 검정고시 보자는 말이야? 우리 엄마가 나 퇴학 안 시키려고 어떠셨는지 알아? 너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너도 나 퇴학 안 당하는 조건으로 나랑 안 만난다고 아버지랑 약속한 거잖아. 나 이제 놓아줘. 부탁할게. 나 이미 많이 힘들어.”

사실 이 말은, 나 스스로도 진심이라고 느껴졌다.

그녀는 다시 한번 애원했다.

“지금 결정하란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읽어봐.”

나는 그녀가 내민 검정고시 학원 안내서를 손으로 뿌리치듯 탁 쳐 버렸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고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잠시 굳은 듯 서 있다가 말없이 쪼그려 앉아 그것들을 한 장씩 주워
담았다.

한참을 쪼그리고 앉아 종이를 줍던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맥이 확 풀린 듯 그녀의 양팔이 축 늘어졌다. 비에 젖은 그녀의 머리도 축 처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알겠어, 오빠. 우리 모두는 선택권이 있는 거니까. 혼자 가더라도 난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난 그 길 위에 언제나 있을 테니까 오빠가 결정해. 그리고 어떤 길
위에 서 있든 이겨. 이겨내. 꼭 그렇게 해.”

그녀는 다시 말라 죽은 고목을 끌어 안듯이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참이나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쏟아지는 빗줄기에 발아래가 젖어 오고 있었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르겠다.
발끝에 젖은 종이 한 장이 빗물에 들러붙어 있는 것이 뒤통에 눈에 들어왔다.

허리를 숙여 집어 들자 형광펜 자국이 번져 있었고,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가
뽁뽁하게 적혀 있었다.

수업 시간표, 버스 번호, 수강료, 그리고 군데군데 동그라미 쳐진 문장들.
빗물에 반쯤 번져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남아 있는 몇 마디는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국어 영어. 이건 껌.
오빠는 수학이 약해.
수학은 나중에. 국어 영어 먼저.

나는 그 종이를 한참 들고 있다가 끝내 접지도 못한 채 주머니에 넣었다

겨울방학이 왔다. 소복이 쌓인 눈이 시선을 어지럽히던 모든 것을 덮어 주는 계절이었다. 그 눈 아래 묻혀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오래되고 무거운 묵화솜 이불 밑에서 꼼짝하지 않았다. 겨울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이불 밑이 좋았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 보는 편안함이었다. 영원히 그 안에 머물거나, 다음 날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눈이 녹으며 겨울 내내 태우다 버린 연탄재가 쌓여 있던 골목의 풍경이 어지럽게 드러날 즈음, 나 또한 끌려 나오듯 학교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2학년 담임은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별명이 판판이었다. 얼굴이 유달리 평평하셨다. 낮은 코와 넓은 얼굴, 작은 눈과 작은 입이 어우러진 안성맞춤의 별명이었다. 학기 초, 역시나 담임 선생님의 특별 호출이 있었다. 나는 교무실, 선생님 책상 앞 작은 의자에 앉았다.

“너 내 별명이 뭔지 알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쉽사리 대답할 수는 없었다.

“난 말이지, 평탄한 게 제일 좋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냥 밋밋하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게 난 제일 좋아.”

선생님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1학년 담임 선생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넌 이미 학교에서 유명인사니까 원래부터 알고 있었지만... 넌 오늘부터 교실 맨 끝 체육특기생 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자율학습, 보충수업은 참석하든 말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다만 하나만 약속해라.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어라. 말도 하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는 교실 맨 끝자리, 체육특기생 자리에 앉았다. 내 옆에는 검게 그을린 얼굴을 한 축구부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피곤한지 아침부터 오후 정규수업이 끝날 때까지 책상에 엎드려 잠만 잤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개의치 않았다. 그것이 그때의 불문율이었다. 특기생 아이들은 법정 정규수업만 마치면 훈련을 받으러 교실을 나갔다. 성적이 떨어져도, 숙제를 안 해 와도 괜찮았다.

나도 그들의 치외법권 속으로 들어와 있었다.

1학년 담임의 국어시간만 아니면 나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책상에 엎드려 잤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의 국어시간에는 그분의 기분에 따라 뒤로 나가 벽을 보고 서 있거나, 복도에 꿇어앉아 있거나, 아니면 엎드려 뺨쳐를 하고 있으면 됐다. 쉬웠다.

교실 뒤로 쫓겨나 벽에 얼굴을 대고 있어야 할 때면, 너무 가까이 벽에 닿은 내 숨결이 마치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녀의 숨결 같았다. 엎드려 뺨쳐를 하고 있을 때나, 선생님이 반 친구들에게 내 욕을 하던 날에는 그녀와 마지막 날이 떠올라 힘들었다.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을때 복도를 쓸고 지나가는 바람이 그녀의 숨결 같았다.

내가 그녀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잔상처럼 내 기억 속에서도 멀어지고 있었다. 다만 그 순간만은 텅 빈 고목처럼 비어 버린 머리와 가슴 어딘가에 한 가닥 새싹이 자라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나는 할 일이 없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안도했다. 그 시절의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정규수업만 마치면 집으로 가야 했기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채 떠돌았다.

처음에는 집에서 책을 읽었다.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부터 시작하는 세계대백과사전을 읽었고, 알베르 카뮈와 톨스토이 같은 세계문학전집도 읽었다. 읽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었다. 정말, 과장하지 않고 심심해서 읽었다. 그 책들은 누구도 실제로 읽을 목적으로 사는 종류의 책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서재를 장식할 용도로 꽂아 두는 전집 형태의 금강 서적들이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 놓은 책들이었는데, 집이 좁아졌어도 유품이라 버릴 수 없어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 보관해 두고 있던 것들이었다. 물론 읽고 싶어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읽었지만, 이상하게도 내게는 쉽게 읽혔다.

그리고 자전거를 고쳤다.

동네 최씨 아저씨가 운영하는 조그만 자전거포에서 자전거 고치는 일을 도왔다. 물론 보수를 받고 한 일은 아니었다. 내가 기계를 곧잘 만지니까, 최씨 아저씨가 도와주는 조건으로 자전거포에 수리 중이거나 보관 중인 자전거들 가운데 내가 골라 무료로 빌려 주시기로 한 것이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해가 완전히 저물 때까지 쏘다녔다.

어느 날, 기름 묻은 손으로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전거포 앞을 지나시다가 나를 발견하셨다. 좀 당황한 나를 내려다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공부는 애저녁에 글렀고, 졸업장만 따면 최씨 아저씨랑 자전거나 고치면서 돈이나 벌어라, 이놈아.”

최씨 아저씨는 기름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시더니 얼른 말씀하셨다.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애가 심심해해서 그냥 여기서 좀 놀다 가는 거예요. 어서 손 씻고 집으로 가거라.”

나는 자전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혀를 차시며 뒤돌아서 발걸음을 옮기셨다. 한 대여섯 발자국쯤 걸어가시다 다시 뒤를 돌아보시더니 말씀하셨다.

“그래, 뭐라도 기술이라도 배워라. 사람이 꼭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이 격려였는지 체념이었는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큰일이 났다.

3학년이 되었다. 3학년이 되어서 큰일인 게 아니라, 내 담임이 공수였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의 별명은 공수였는데, 실제로 80 년도에 공수부대원으로 비극의 현장에 투입된 전력이 있다는 전설의 소유자였다. 거의 말쑥이 없으신 분이었지만,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는 분이셨다. 공수 선생님의 반으로 배정받은 아이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나만큼은 아니었을 것이다.

2학년 시절의 특권은 모두 박탈당할 게 뻔했다. 나의 휴식도 거기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나는 진지하게 자퇴를 생각했다.

그리고 여지없이, 또 특별 호출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은 무심한 듯 생활기록부를 뒤적이시다가 한참 후에야 내 얼굴을 쳐다보셨다. 나는 급히 눈을 아래로 깔았다. 선생님은 다시 깊은 침묵 속에서 기록부를 넘기셨다. 가슴이 조여 왔다. 다시 나를 바라보셨다.

“넌 어째 국어, 영어는 항상 백점인데 다른 점수는 이러는 거냐?”

대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학급에서 하위권이었지만 국어와 영어는 늘 백점 수준이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자율학습, 보충수업 다시 참석하고, 수학은 따라가기 힘들다 치더라도 일단 암기과목 위주로 점수 올리면 충분히 대학은 갈 수 있다. 알겠지?”

그럼 교실로 가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마비되었는지, 원지. 하여튼 교실로 가 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몸이 반응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다시 나를 돌아보셨다.

“어서 교실로 들어가라는데 왜. 할 말이 있냐?”

“아... 아닙니다.”

나는 가까스로 몸을 세워 일어나 뒤돌아섰다. 선생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생활기록부를 뒤적이며 말씀하셨다.

“난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하는 말, 전혀 믿지 않는다.”

나는 교실로 향하다 말고 수도가로 뛰었다. 그리고 울음이 그칠 때까지 계속 세수를 했다.

공부가 쉬웠다. 이른 오후 혼자 학교를 나올 때 느껴야 했던 눅눅하고 끈적한 감각도 더는 느낄 필요가 없었다. 선생님 말대로 수학은 어쩔 수 없는 상태였지만, 2년 동안 비워 두었던 내 머리에 진공청소기처럼 빨려 들어가듯 공부가 스며들었다. 시간이 너무 짧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1년은 빠르게 흘렀다.

“졸업장만 따고 사회 나가 돈 벌어 올 줄 알았더니, 난데없이 웬 대학 합격장이냐? 허참...”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말씀하셨다.

“아이 참, 엄마는 무슨 말이 그래? 하하. 정말 대견스러워. 오늘 나랑 시내 나가서 대학 입학식 때 입을 옷 사자. 이 누나가 사는 거야.”

나는 누나와 외출 준비를 하고 함께 대문을 나섰다.

“누나, 나 깜빡하고 수험포 놔두고 나왔어. 잠깐 기다려.”

수험표를 가지고 가면 옷을 살 때 할인을 해 주는 행사가 있었다. 대문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데, 어머니가 내 합격증을 한참 들여다보고 계셨다. 내가 들어서 는 걸 느끼셨는지 짐짓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다.

“왜 또?”

“수험표를 놓고 와서요.”

“저놈의 정신머리… 그래 가지고 대학생활이나 제대로 하겠어?”

역정을 내시는 말투였다.

누나와 함께 시내에 다녀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내 합격증은 유리 액자에 넣어져 벽에 걸려 있었다.

나는 꽤 괜찮은 대학교에,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진학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1년만 더 수학을 보강해서 진짜 탑클래스 학교를 가자고 제안하셨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했다. 진짜 탑클래스 학교에 진학하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그러면 하숙비며 생활비까지 들 테니 어머니가 고생스럽겠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 나는 정말 거기까지가 만족스러웠다. 게다가 그 학과가 참 좋아 보이기도 했다.

졸업식 날, 학교 강당은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다. 누나가 참석해 주었다. 엄마는 일이 바빠서 못 온다고 하셨지만, 그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다.

화학 선생님이 다가와 물으셨다.

“그래, 넌 어디로 스카우트됐니?”

“○○대학교 ○○학과로 진학합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가웃하셨다.

“운동부가 무슨 그런 곳으로 진학하니?”

나는 그 말에 웃음이 났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3학년 때도 다른 반의 담임을 맡고 있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너 들었어? 국어 선생님 오늘 참석 안 한대.”

“왜?”

“왜겠어? 졸업식 때 테러 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졸업식 난장판 되는 꼴 학교에서 그냥 놔두겠냐.”

“하긴, 진짜 징글징글했지.”

나는 속으로, 나 말고도 고생한 애들이 또 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졸업식 도중 갑자기 내 이름이 호명되었다.

“다음 상은 우리 학교 12회 졸업생이시자 총동문회장을 맡고 계신 ○○상사 ○○○님께서 장학금과 함께 수여하시는 특별상입니다. 오늘 공사가 다망하신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교장선생님께서 대신 수여하시겠습니다. 3학년 1반 이지훈 앞으로.”

“네가 특별상을 타?”

“퇴학 맞을 뻔한 놈이?”

“1학년 담임도 못 자르더니 2학년 땀 언터처블이었지.”

“장학금까지 타네.”

“뺨이 대단하다더니... 진짜네.”

2학년 때 급장이었던 철희의 비아냥거림에 나는 얼어붙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철수가 곧바로 철희의 말을 받아쳤다.

“왜? 학력고사 떨어지더니 샘 나냐? 지훈아, 뭐 해. 빨리 튀어나가!”

철수가 내 등을 세게 밀어냈다. 강당 앞으로 나가는 내 뒤로 학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위 학생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고 평소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

머릿속이 웅웅거렸다. 뒤에 앉아 있는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오히려 상장 대독보다 더 크게 들렸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읽으신 뒤 단상에서 나를 내려다보며 그것을 건네주셨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상장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돋보기안경을 내리고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때 너 살려 주신 그분이 주시는 거다.”

그러고는 살짝 웃으셨다.

단상을 내려오기 위해 뒤돌아섰을 때, 웅성거림 한켠에서 휘파람과 환호성이 들렸다. 불과 몇몇 아이들의 것이었고, 다른 애들은 의아한 듯 그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 성한의 얼굴도 보였다. 고 1 때 우리 어머니께 잘하라며 내 어깨를 툭 치고 가던 아이였다. 머리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다. 상장은 애써 잊고 있던 바윗돌처럼 무거웠다.

내게 그녀를 찾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생각보다 그녀가 왜 나를 찾지 않는지가 더 궁금했다. 그녀를 밀어낸 것은 나였지만, 어쩌면 그녀가 다시 나를 찾아올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모질게 밀쳐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결국 나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실컷 가지고 놀다가 재미없어지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애들. 승재의 말이 떠올랐다. 그런데 그날, 그녀의 아버지가 내게 준 장학증서를 보며 나는 깊은 고민에 빠져야 했다.

3년 전, 교정을 나서며 그녀의 아버지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남자 대 남자로 약속하는 거다. 알겠지?”

그녀와 완전히 헤어진 데 대한 보상.

나는 결국 그렇게 결론 내렸다.

고목같이 바싹 말라버린 내 가슴 한편에 자라나던 그 한 가닥 새싹은 그날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나는 그 장학금마저 수령하지 않았다.

“지훈아, 누가 너 찾는다.”

누굴까?

“어이, 이지훈! 살아 있었네? 친구 재끼고 연애하더니, 친구는 돈 벌러 뛰는데 대학생님은 꿀 빨면서 이제 내 얼굴도 다 잊어버렸지?”

승재였다. 나를 기다렸는지 학생회실 앞 복도에서 휘적휘적 걸어 나왔다.

“이건 뭐 전화도 안 되고, 집도 이사 가 버리고, 이 귀하신 몸이 여기까지 꼭 오게 만들어야겠어? 카~! 이게 대학 캠퍼스라는 거로구나. 좋다, 좋아. 내 친구가 대학생이 되었어.”

승재의 비꼬는 말투는 여전했지만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다. 그 때문이었을까. 나도 예상 밖으로 승재가 반가웠다.

“너무 오랜만이야, 승재야. 그동안 잘 지냈니?”

“워, 소인이야 꽃밭 날아다니느라 바빠서 이런 대학 문턱은 못 들어와 봤습니다만, 나름 뭐 그러저러 잘 지내고 있사옵니다.”

나는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아이 참. 너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넌 정말 그대로야.”

승재는 내 앞으로 오더니 한 손은 내 어깨에 얹고, 다른 손으로는 내 손을 꼭 잡았다.

“반갑다, 내 친구야. 형님이 좀 뻘했다고 이렇게까지 안 볼 일이었냐?”

악수를 하며 나는 그의 새끼손가락을 바라보았다. 그도 내가 제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는지, 새끼손가락을 까딱거리며 말했다.

“역시 넌 잊을 수 없는 친구지. 내 손가락을 볼 때마다 니 생각 안 할 수가 없으니 말이야.”

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걱정 마라. 새끼손가락인데다가 절반은 펴지니 아무 상관없다. 하하하하....”

그리고 우리는 한참 웃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오래 연락하지 못했음에도, 우리의 만남은 너무 편하게 다가왔다.

“진짜 평생 갓난아이처럼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너도 많이 상했다. ㅋㅋㅋ.”

캠퍼스를 가득 뒤덮은 벚꽃이 서둘러 퇴장하려는 듯 무리 지어 사방으로 흩날리고 있었다.

“워, 그렇지. 군대 다녀오면 다 아저씨 아니냐. 나도 복학생이라고 현역 애들이 아저씨 취급해.”

“짜샤, 난 지금 니 모습이 더 낫다. 어디 귀여운 미키마우스같이 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 나가겠어? 남자는 말이야, 좀 굼히고 부러지고 해야 남자지.”

“그래, 니 말이 맞다. 근데 넌 어떻게 살았어?”

“나야 뭐 공부에는 관심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엄마한테 대학 등록금 대신 달라고 해서 여자중학교 앞에서 떡볶이 장사부터 시작했지. 내가 원래부터 인기가 많은데 어찌됐니? 뭐, 이건 잘생긴 오빠가 만들어 주는 떡볶이로 소문나서 금방 자리 잡고 돈 좀 만졌지. 그래서 지금은 작은 식당 열었어. 젊은 애들 스타일로 경양식도 좀 팔고…. 나름 괜찮아.”

그는 주머니에서 원가를 꺼내 한쪽을 향해 눌렀고, 곧 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뽁뽁 소리를 냈다.

웃음이 내 입가에 환하게 번졌다.

“대단하다. 하하하… 참, 너 똑똑해서 내가 잘될 줄 알았어. 그러고 보니 너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도 보고, 세월이 많이 흘렀네.”

“그래서 내가 기특해? 난 니가 더 기특하다. 돈은 좀 벌었는데 난 대학교를 못 갔잖나. 돈이야 나중에도 벌 수 있겠지만, 난 또 그게 후회가 되더라.”

“늦게라도 들어오면 되지. 안 될 게 뭐야.”

“아니, 사람은 잘하는 걸 하고 살아야지 부러운 걸 하고 살면 그게 더 후회하게 될 일이야. 그래도 나는 대학생 친구도 있고…. 네가 참 자랑스럽다.”

승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있던 장난기가 싹 사라져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넌 해낼 줄 내가 알고 있었어. 힘들었지, 친구야…. 난 니가 결국 해낼 줄 알았어.”

정말로 원가 울컥한 얼굴이었다.

“왜 그래, 너답지 않게. 내가 뭘 해냈다고 그래. 이제 겨우 복학해서 학교 적응도 잘 못 하고 있구만.”

승재도 짐짓 당황했는지 벌떡 일어나 양복 재킷 단추를 풀고 크게 양팔을 휘저으며 기지개를 켜다.

“그래. 우린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러고 보니 다른 애들은 어떻게 지내?”

“다른 애들?”

승재의 반문에 나는 짐짓 당황스러워졌다. 생각해 보면 승재는 동네 친구도 아니고 학교 친구도 아니었다. 성당에서 처음 만났지만 둘 다 성당은 금방 집어치우고 롤러스케이트장에 다니던 단짝이었으니, 우리 둘 사이에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으응, 그 민지라는 친구도 있고....”

승재가 웃으며 내 허벅지를 주먹으로 꼭 눌렀다.

“미친 새끼. 솔직하게 말해, 임마. 너 그녀 생각 아직도 하는 거지.이 형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허허.”

“아니야, 그런 거. 나도 완전히 잊었어.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승재는 내 얼굴 가까이 들이대며 장난스럽게 눈을 들여다보았다.

“요요요거 거짓말하는 거 봐라. 내가 설마 니 마음 모르겠냐? 민지가 한 번씩 말해 줘서 알고 있었지. 완전히 잊었으면 내가 괜히 말 안 하는 게 낫겠지?”

나는 대답 없이 앞만 바라보았다.

“내가 그랬지? 내가 그런 부류의 애들 전문이라고. 지 멋대로 하는 애들. 지네 아버지랑 어디까지 틀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신가 뭔가 본다고 했다가, 그것도 잘 안됐는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있다가 지네

아버지가 유학 보냈다 하더라. 글썄, 그런 부류의 애들은 그렇게 지 멋대로 해도 부모가 뽕뽕하니까 유학도 간다니까. 빌어먹을.”

검정고시라는 말에 내 머리는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정면만 응시했다.

승재가 담배를 꺼내 나에게 권했다.

“나 담배 안 펴.”

승재는 능숙하게 담배에 불을 붙인 뒤 책상다리를 하고 한쪽 팔을 벤치에 걸친 채 길게 담배 연기를 뿜어 냈다.

“어디로, 언제 갔대?”

“왜, 쫓아가려고?”

“말했잖아. 나 진짜 잊었다고. 니가 먼저 말하니까 그냥 물어보는 거야.”

“몰라. 뭐 오스트리아인가 호주인가. 간 지 얼마 안 됐어. 당분간 안 올 거니까 생각도 하지 마. 알았지?”

오스트리아는 아니고 호주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 개가 얼마나 지 아버지 속 썩었는지 아니? 가출까지 하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아버지한테 돈도 다 끊기니까 식당 알바… 아니, 그냥 뭐 여기저기 막 그러다가, 뭐 그냥 아무튼 그렇게 아무 데나 돌아다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아이, 머리 아프다. 알라고 하지도 마.”

“식당 알바?”

“아니, 내가 말이 헛나와서…. 그래 봤자 그 아버지가 가만 봤겠냐. 다 음으로 양으로 퍼줬겠지. 아무튼 이제 너랑 개는 급이 달라, 급이. 너 정도면 사회

나가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 줄을 서. 아주 자격증만 따 봐라. 나라도 니랑 살고 싶겠다.”

그의 말은 지나치게 과장돼 있었다.

승재는 다시 책상다리를 한 채 담배를 필터 끝까지 빨아들였다. 무릎 위에 올린 다른 쪽 다리는 가늘게 떨고 있었다. 담배꽁초를 손으로 멀찍이 툭 던지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야, 이런 이야기 그만하자. 오랜만에 만나서 괜히 기분만 잡치게…. 넌 이제 미래만 바라보면 돼, 친구여. 언제 가게로 놀러 와.”

그는 명함을 내게 건넸다. 나도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정말 반가웠다, 승재야. 자주 만나자. 그리고 미안했어. 연락 못 해서.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내가 다 안다. 니 어떻게 지냈는지. 그때 내가 더 힘이 돼 줘야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 보니까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승재는 진지했다. 우리는 서로를 힘껏 안아 주었다.

승재가 자기 차를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차 옆에 다다르더니 문을 열지 않은 채 잠시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그러다가 이내 내 쪽을 돌아보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었고, 손을 흔들었다.

나도 승재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며칠 뒤, 승재가 알려 준 주소를 따라 그의 식당을 찾아갔다.

승재의 식당은 대학가 뒤편 식당가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규모가 크진 않았지만 젊은 감각의 인테리어에, 과하지 않은 파스텔톤으로 정돈된

느낌이었다. 승재 센스가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라고 생각하며 식당 한켠에 자리를 잡았다.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자가 메뉴 판을 들고 내 앞에 섰다.

“저희 마감 시간이 8 시거든요. 지금 30 분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 어? 오빠?”

나를 보고 적잖이 놀란 모양이었다.

“오빠, 오랜만이야…. 얼마 만이지? 길에서 봤으면 절대 못 알아봤겠다. 벌써 거의 10 년 다 돼 가나?”

놀란 건 민지뿐만이 아니었다.

“어? 너 민지잖아. 니가 왜 여기 있어?”

그 사이 주방에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승재가 나왔다.

“어이, 친구~! 왔구만. 하하하…. 생각보단 식당이 좀 작지?”

내가 전화를 했을 때 승재는 마감 시간쯤 와 달라고 했다. 그의 말대로 식당은 거의 정리되고 있었고, 몇몇 손님이 계산을 하려고 카운터로 향하고 있었다.

“오빠, 잠깐만. 손님 결제 좀 도와주고 올게.”

“응…. 민지야, 반가워. 근데 왜 재가 여기 있냐?”

“뭐, 그렇게 됐다. 한 3, 4 년 됐어. 여기서 좀 더 큰 곳으로 옮기고 나서 자리 잡는 대로 결혼도 하기로 했어.”

“야, 대단하다. 정말.”

“그건 그렇고, 너 뭐 좀 먹어야지. 메뉴 많긴 한데 오늘은 내가 먹으라는 걸로 먹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뒀으니까.”

“나를 위해 준비해 둔 게 아니라, 오늘 남은 재료로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

“하하하, 이 자식. 어떻게 눈치챘을까?”

나는 승재의 요리를 기다리며 민지가 식탁을 정리하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민지도 물을 가져다주며 내 얼굴을 한번
훑끗 보았을 뿐, 다시 자기 할 일이 바쁜 듯 손님이 떠난 식탁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시간을 맞춰 미리 준비해 둔 것인지 어쨌지는 모르겠지만 승재의 요리는 금방
나왔다. 우리는 같이 그 요리를 먹었다. 민지는 정산을 하는지 바쁜 손으로
카운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민지는 같이 안 먹어?”

“응. 민지는 아까 먼저 먹었어.”

“나 깜짝 놀랐다. 너 왜 미리 말 안 했어?”

승재는 밥을 입에 넣은 채 알아듣기 어려운 소리로 중얼거렸다.

“민지 이야기했으면 니가 나 보러 올지, 민지 보러 올지 이 형님이 알 수가
없잖아.”

“야, 무슨 말을 그래? 어쨌든 보기 좋다.”

“나 분식집 할 때부터 같이 했어. 이제 자리도 잡았으니 곧 호강시켜 줘야지.”

민지는 우리 말이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급히 문 쪽으로 가더니 막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마감이에요.”

그러고는 재빨리 들어와 다시 계산기를 잡았다.

“내 요리 솜씨는 이만하면 보여 준 것 같고, 그냥 헤어지긴 서운하니까 2 차로 호프집이나 갈까?”

“그래. 저녁밥은 니가 해 줬으니까 내가 호프는 쓸게.”

“학생 녀석이 무슨 돈이 있다고…. 오늘은 형님이 쓸 테니까 나만 따라와.”

“아냐. 나도 니 호프 사 줄 돈은 있어.”

“어허, 이 녀석이…. 잔말 말고 그냥 오늘은 나한테 맡겨.”

민지는 일을 다 마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지도 같이 갈 거지?”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승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알았다는 듯 민지에게 물었다.

“민지야, 너도 같이 갈래?”

민지는 옷을 정리하면서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나야 뭐 시시한 약속이 있긴 한데… 지훈 오빠가 꼭 같이 가자고 하면 가고.”

승재는 다시 시선을 내게 돌려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물었다.

“뭐, 어떻게 할래?”

“간만에 봤는데 같이 가 주면 안 될까?”

나답지 않게 그녀의 약속에 대해선 묻지 않았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잔을 따르며 별다른 것 없는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적어도 승재는 오랜만의 친구 술자리에 무척 상기된 듯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있었다. 내가 그의 분위기를 너무 못 맞춰 주는 것 같아 미안해질 때까지 민지도 별말 없이 무표정하게 안주만 뒤적거리고 있었다.

“뭐야, 이 공기는. 나만 기분 찌지는 거야 지금?”

“아냐, 듣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다…. 나도 너같이…”

방금 승재가 뭐라고 말했는데 이어 가지 못했다. 승재가 갑자기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래. 너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 내가 빠져 주랴?”

“아, 아니야…”

“민지야, 애 궁금한 거 있다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줘라.”

“그래도 돼? 아주 펄쩍 뛰시더니 갑자기 왜 마음 바꿨어?”

승재는 내 어깨에 손을 톅 하니 얹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 녀석이 꽤 단단한 녀석이란 말이지.”

민지는 한참 망설이다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빠가 궁금하면 왜 진작 언니를 찾지 않고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 오래전 일이고 나도 오빠한테 화난 것도 있고…. 오늘 다 풀자.”

짐짓 화난 듯한 음성이었다. 승재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민지를 옆눈으로 흘겨보았다.

“뭐 어찌라고? 말해 주라며 이러면 나 그냥 간다.”

승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려 소파 옆에 놓인 화분 잎사귀만 만지작거렸다.

민지는 한참이나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오빠 퇴학 맞고 나서 언니 진짜 힘들었어. 그래도 그때까진 어떻게든 버티는 것 같았는데, 아버지랑 크게 틀어진 뒤로는 완전히 달라졌어. 학교도 그만두고 한동안 연락도 안 됐지. 나도 나중에야 우연히 봤어.

우연히 간 식당에서 화장실 다녀오다가 뒤편에서 언니를 본 거야. 고기 찌꺼기 냄새랑 독한 약품 냄새가 섞여서 순간 토가 쏠릴 것 같았어. 언니는 축축한 바닥에 꾸그려 앉아 불판을 닦고 있더라. 처음엔 나도 못 알아봤다니까. 머리카락도 헝클어져서 땀에 젖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어. 내가 거기서 뭐 하냐고 다그치니까, 홀서빙은 미성년자 고용 단속 걸릴 수 있어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거래.

그거 오빠, 불판 닦는 약이 얼마나 독한지나 알아? 내가 언니 손가락 보고 깜짝 놀라서 왜 이러느냐고 물으니까, 약품 탈 때 잘못해서 손끝 피부가 벗겨졌대. 얼마나 쓰라렸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졌어.”

까진 손가락의 쓰라림이 내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민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다.

“내가 살짝 오빠 얘기를 꺼내봤거든. 난 무슨 뜻인지 다는 모르겠는데, 언니가 그러더라. 자기는 원래 오빠 인생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 말 듣고 내가 역정을 내니까, 나보고 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화냈어. ‘그때 내가 괜히 맞서라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지켜주지도 못할 거면서.’ 그러면서 자기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더라니까.”

승재가 나섰다. 아까보다 훨씬 가라앉은 목소리였다.

“민지야, 그만됐다. 내가 이러려고 지훈이랑 같이 봐도 된다고 한 건 아니잖아. 왜 나쁜 이야기만 해서 애 아프게 해. 결국 개는 유학 갔잖아. 우리가 그런 애들까지 걱정해 줘야 할 처지냐?”

민지는 고개 숙인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래, 오빠…. 나도 이런 말 하려고 오빠 보자고 한 건 아니었어. 언니도 나중엔 어느 정도 아버지랑 소식 정도는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지훈아. 원래 개랑 우리 같은 애들은 같이 어울리는 게 아니었어. 너도 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뭐 더 궁금한 거 있냐? 없지? 공주님도 마음은 쓰이셨겠지만 결국 행복하게 살으셨답니다. 좋잖아. 이러지 말고 이제 3차 가자, 3차.”

민지가 다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실 나도 이거 외엔 자세히 아는 거 없어. 유학가기 전 내가 언니 연락처 달라고 했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는 말만 남겼어.”

“에잇, 무슨 연락처는 연락처야. 쓸데없게.”

승재가 역정을 냈다.

“아, 진짜 나도 연락처 모른다고. 정말!”

민지가 쏘아붙였다.

“민지는 이제 들어가고 우리 3차 가자, 3차!”

나와 승재는 또 알 수 없는 불빛 속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고, 다음 날 어스름이 깔릴 즈음 나는 승재의 등에 업혀 집에 돌아와야 했다.

뿌연 연기가 걷히고 그녀의 입술에서 체리빛 피가 스며 나오더니 올려다보는 내 눈물에 번져갔다. 나는 어쩐지 뒤돌아 뛰어가다 다리가 헛돌더니 몸이 들렸다.

무중력 상태가 된 듯 의자는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떨구고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피부가 갈라지고 썩어 들어가더니 그 틈에서 구더기가 들끓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한동안 고깃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본다이 비치의 풍경을 상상해 보는 것이 나만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오빠, 오늘 형님이랑 아주버님 오시기로 했다면서요?”

“응. 점심때 사무실 근처에서 식사하고, 사무실 잠깐 들렀다 가실 거야.”

침대보를 정리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분주했다.

“나도 가면 좋은데. 아쉽네.”

“벌써 이번 주만 두 번 만났는데 아직도 아쉬워?”

“당연하지. 이번에 가시면 또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올해 우리 결혼 20 주년이니까 미국 한번 갈까?”

“진짜? 진짜지?”

“뭐, 차차 생각해 보자고.”

“딴말하기 없기다. 약속.”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치다가 내가 말했다.

“나도 이젠 얼굴에 나이 티가 나는 것 같아. 젊었을 때 관리를 좀 했어야 했나?”

아내는 마치 소녀처럼 양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린채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사람 얼굴은 살아온 세월이 남는 거라잖아. 나는 잘생긴 얼굴보다 그런 게 좋아. 자기는 이겨 낸 사람 얼굴이야. 그런데도 아직 어쩐지 소년 같잖아.”

나도 그녀를 돌아 보며 웃었다.

“어디 나도 당신 얼굴 얼마나 변했나 한 번 볼까?”

그녀는 얼른 얼굴을 가리고 웃으며 말했다.

“아이 싫어. 어제 야식을 먹어서 그런지 퉁퉁 부었다고.”

그녀는 내 등뒤로 숨었다.

“올해는 특별한 해야. 다 기념해야겠어. 오빠 처음 만난 날, 처음 키스한 날, 그리고 처음 싸운 날까지.”

나는 거울 속, 내 등에 얼굴을 묻고 기대어 있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싸운 날은 좀 빼자고.”

“나쁜 기억도 나중엔 다 아름다워 보이는거야. 아참, 오빠. 며칠 뒤면 발렌타인데이인데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애들도 아니고 무슨 발렌타인데이야. 요즘은 젊은 애들도 시큰둥하더라만.”

“왜, 어째서. 어차피 애도 없는데 난 오빠랑 평생 연애하는 것처럼 살 거야.”

나는 얇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와우, 와우! 판타스틱!”

매형은 눈부시게 반짝이는 크롬 광을 뿜내며 줄지어 서 있는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들을 보고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아직 날씨가 차니까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일단 사무실로 들어오시죠.”

“와우, 와우. 왓 더 헉! 잇츠 보이스 패러다이스!”

사무실로 들어서서도 매형의 감탄은 계속됐다. 누나는 사무실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너 사무실을 이렇게 꾸며 놓고 사업해도 괜찮은 거니? 클라이언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였다.

“커피? 아니면 차?”

나는 커피머신에 캡슐을 집어넣고, 머신이 내는 소음을 핑계로 누나의 잔소리를 막았다.

“내가 미국에서도 꾸준히 네 평점이랑 리뷰 찾아보는데 그렇게 반응이 좋은데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더 잘될 것 같더만 이려고 있니?”

“흐흐, 괜찮아. 어차피 내 품팔아서 하는 건데, 여기서 더 하면 나 죽어.”

누나는 소파에 등을 기대며 주위를 한 번 더 둘러본 다음 말을 이었다.

“그래, 달랑 두 식군데 그 돈 다 들고 갈 것도 아니고 욕심부릴 것도 없지. 넌 하나도 변한 게 없네.”

그러고는 매형을 보며 영어로 말을 이었다. 내가 어릴 때 핫도그 하나도 사 먹어 본 적 없고, 오로지 용돈만 생기면 이런 장난감 사 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그러고 다시 나를 쳐다보더니 말했다.

“뭘, 그것도 집안 폭삭 망하고는 언감생심 꿈도 못 꿔지만 말이야…. 애 하나 있었으면 이런 거 같이 하고 얼마나 좋은 아빠가 됐을 텐데. 아쉽다.”

누나도 나이 먹더니 잔소리만 늘었다.

“아이고, 말도 마. 요즘 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내 친구들 이야기만 들어도 난 머리가 터질 것 같던데…. 정말 내 친구들이지만 존경스러워. 나랑은 한 차원 다른 경지에 오른 애들이라니까.”

“배워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니. 살다 보니 배워지는 거지.”

하지만 나는 속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길로 접어들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길목마다 선택의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를 고른다는 것은 결국 다른 하나를 잃는 일이라는 것도 함께 배웠다.

“엄마 모시는 거 내가 못하고 있는 거 너무 미안하다. 미국 살이도 만만치 않아서 자주 와 보지도 못하고…. 너희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는 거 잘 알아. 내가 말할 자격은 없지만 이제 엄마도 많이 늙으셨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해도 마음에 너무 담지 말고. 엄마 성격 잘 알잖아.”

“나야 뭐 하는 거 있나. 작은누나가 제일 고생이지. 누나도 이번에 엄마 옆에서 좀 잘해. 그리고 작은누나한테 잘한다고, 많이 위로해 줘. 작은누나 진짜 엄마 때문에 많이 힘들어.”

누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에휴…. 근데 너 정말 사업 확장하고 싶은 생각 없어? 능력이 아까워서 그래.”

“난 여기까지가 제일 좋아.”

누나는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말했다.

“재수하라고 할 때도 그러더니, 넌 어쩔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넌 정말 그대로야. 하긴 사람이 변하니.. 이리 채이고 저리 채여도 결국 자기 자리 찾더라.”

나와 매형은 내 수집품 앞에서 한참이나 신이 나 상기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누나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사람은 살면서 평생 한두 번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다. 그날이 나에게 그랬다. 그 사건은 퇴근 길 나의 사무실 맞은 편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일어났다.

예전보다 시들해진 발렌타인데이 분위기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과점에는 초콜릿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이제 나와는 거의 상관없는 물건이라 관심 밖이었지만, 그날 내 시선에 박히는 초콜릿 상자가 하나 있었다.

그것은 늦겨울 무심히 길을 지나던 나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다. 마치 사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나는 삼십 년 전의 초콜릿 상자와 똑같은 초콜릿을 보았다. 하나하나의 배열과 빛깔까지, 마치 그때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처럼 선명하고 구체적이었다..

나는 제과점 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 동안 그 초콜릿을 바라보았다.

“초콜릿 사시게요?”

종업원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게...”

중년의 남자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 앞을 서성이는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엔 그 초콜릿이 너무도 선명하게 내 뇌리에 박혀 있는 그것과 똑같았다. 나는 짐짓 시선을 거두고 접시와 접계를 들어 다른 빵을 골랐다. 그러다 다시 그 초콜릿을 돌아보며 종업원에게 물었다.

“이런 건 보통 얼마 정도 하죠?”

종업원이 씩 웃으며 말했다.

“좀 놀라시겠지만, 백만 원이에요. 이거 딱 하나밖에 없는 수제 초콜릿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짐짓 놀란 듯 다시 물었다.

“수제 초콜릿은 보통 그 정도 합니까?”

“사실 그 정도로 비싸진 않아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제과점에서도 어쨌면 전시용으로만 있는 걸 수도 있어서요. 누가 진짜 구매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다들 깜짝 놀라셔서 저도 설명하느라 진땀이 나요. 하하.”

나는 빵을 골라 계산대에 서서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그러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춘 뒤, 급히 제과점 문을 다시 열었다.

“저기, 저 초콜릿 제가 살게요.”

종업원은 짐짓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만요. 사장님한테 여쭙 봐야 해서…”

그러면서 제과점 안쪽으로 들어갔다.

흰머리 몇 가닥이 고급스러운 웨이브를 타고 귀등을 따라 내려오는 모습이 인상적인 중년의 숙녀가 안쪽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물었다.

“이 초콜릿 사시게요? 이게 좀 비싼데...”

“괜찮습니다. 제가 살게요.”

나는 카드를 꺼내 내밀었다.

“그럼 백만 원 결제하겠습니다.”

그녀는 결제하는 척 망설이다가, 갑자기 카드를 다시 내게 건넸다. 안 팔겠다는 뜻 같았다. 애초에 백만 원이라는 가격을 붙인 것 자체가 팔지 않겠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았다.

“왜죠?”

“이 초콜릿은 이미 계산됐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그 분이 누구죠?”

“누군지는 저도 모릅니다. 중년 여성 두분이 오셨는데 이 물건은 임자가 있을 거라고 말만 남기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매장에서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놓아 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죠.”

나는 서재로 들어가 초콜릿 상자를 열어 보았다. 초콜릿 상자 안에는 손수첩만 한 책 한 권과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내 시선은 먼저 사진들에 멈추었다. 필름카메라로 찍은 듯 해상도가 떨어지는 사진들이었다.

맨 위의 사진을 본 순간 나는 얼어붙었다.

환하게 웃으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다음 사진을 들춰 보았다.

초콜릿 사진이었다. 나는 빗바랜 사진 속 초콜릿과 내 앞에 있는 초콜릿을 번갈아 보았다.

그다음 사진은 모자를 폭 눌러쓴 채 가로등 아래 우두커니 서 있는 내 뒷모습이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한 장씩 사진을 넘겼다.

졸업식 날, 상장을 받아 들고 단상에 서 있는 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다.

나는 한참이나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초콜릿 하나를 꺼내 입으로 가져갔다. 그때 그 향기,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초콜릿이 내 입속에서 녹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또렷해졌다. 칸칸이 채워진 초콜릿을 하나씩 외우듯 나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초콜릿을 먹었던 날 느꼈던 승재에 대한 미안함, 화이트데이 전에 먹었던 초콜릿의 씹쓸한 맛이 내 혀끝에 전해졌다. 그녀의 향기가 사무쳐 오던 밤에 먹었던 초콜릿은 아직도 내 목구멍 어딘가에 걸려 있는 듯했다. 나는 그렇게 하나하나의 초콜릿을 다 외울 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손수첩 같이 생긴 그 책을 찬찬히 펼쳐보았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나는 그 책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간밤에 한잠도 이루지 못한 것은 내가 초콜릿에 민감한 체질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심장이 미친 듯 두근거리지는 않았다. 그 시절 내가 초콜릿을 먹었을

때 느끼던 심장의 떨림은 훨씬 안정된 리듬을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했다. 나도 이제는 초콜릿을 먹어도 괜찮은 체질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아직 캄캄한 거실을 지나,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이제 막 차오르기 시작한 액자 같은 창문 앞에 서서 커피를 탔다. 그리고 달걀 하나를 서니사이드업으로 부쳐 접시에 담은 뒤 침실로 향했다.

한숨도 자지 못한 것치고는 발걸음이 사뿐했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레 침대 머리맡에 앉았다. 오랜만에 한참 동안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많이 늙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보니 그대로였다. 흰머리가 몇 가닥 보이고, 웃는 게 일상인지라 생긴 눈가의 귀여운 주름이 눈에 띄었지만 그녀는 어느 하나 변한 곳 없이 그대로였다.

그녀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다.

“당신, 나 보고 있었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다.

“커피랑 계란 여기 놔둘게. 물 먼저 마시고 먹어.”

내가 일어나려 하자 그녀가 내 손을 잡아끌어 침대에 다시 앉혔다. 그리고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당신, 웃는 모습은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어. 항상 그대로야. 그래서 고마워.”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Inspired by WangOK's "Before Spring Ends"

지은이 : 이상훈

E-mail : helpanimal@daum.net